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도파민최

이달의 표지 작가

런던 킹스턴대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Dopamine Lab〉(OMAE Galley, 2018), 〈Pink Brain〉(Public Gallery, 2018) 등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Start〉(Saatchi Gallery, 2017), 〈습가전〉(Jean Gallery, 2017), 〈경계적 유희〉(Gallery Sejul, 2018)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Nike, Thebooth Brewing, Novita, Tenga와의 컬래버레이션 작업 등을 통해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9, 10기 입주작가이다.

'행복 호르몬'으로 정의되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행복'과 동시에 '중독'이라는 명제를 동반하는 소재이다. 행복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중독으로 인한 위험성 앞에서는 절제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행복과 중독에 대한 기준 내지 관점은 연령, 단체, 인종 및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만큼 도파민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 정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이 끝없이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 질문하고 사고하는 예술의 궁극적 목적과 호환하는 소재로서 흥미롭게 느껴졌다.

도파민 호르몬이 결핍되면 인간은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우울증 또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해 행복, 인내, 끈기, 성취감, 사랑 등을 느끼게 되며 분비될수록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과다 분비되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 극단적인 각성 효과를 일으키며 강박증, 정신착란, 과대망상, ADHD 등을 야기한다. 도파민의특성처럼 내 작업은 결핍, 행복, 중독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행복한 삶, 뇌 관리 시스템, 더 나아가 '뇌'라는 거대한 행성에 '도파민' 주민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며 춤추고 있다고 상상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나는 행복과 중독의 이중성을 상상력이라는 스위치로 전환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그 가치를 존속시키려 한다. 나아가 다양한 뇌 속 현상들을 어려운 도표 혹은 화학기호가 아닌 상상력의 세계로 전달함으로써 그 속에서 독특한 패턴을 이루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뇌의 흐름을 예술가로서 표현하고자 한다.





표지 작품

(Kill The Oxytocin) acrylic on resin | 170 \times 75 \times 75cm | 2018

_

- 1 〈LIKE〉 acrylic on resin | 40×25×25cm | 2018
- 2 〈Pink Brain〉 mixed media | 가변설치 | 2018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도파민최

테마 토크

예술,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

06 칼럼

장애 예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10 인터뷰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

14 현장 스케치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미래 포럼 '같이 잇는 가치' 현장을 가다

사람과 사람

- **18** 문화인 사진작가 황예지
- **24** 작가의 방 전미라 무용가 · 추예지 크리에이터 · 신창렬 음악감독 · 문삼화 연출가
- 28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신한은행 사회공헌부 신윤진 CSR 사업 팀장
- 32 진실 혹은 대담 넷플릭스의 공습, 도전받는 도서정가제
- 38 예술가의 밥그릇 스니커 아티스트 루디

_

40 서울 찰나





이슈 & 토픽

- **42 쟁점** 공연계 '도촬' 논란
- **44 화제 1** 2030 여성 관객에 힘입어 '혼공족' 급증
- **46** 화제 2 웹소설 열풍



공간, 공감

- 48 공간 1 '소액多컴'
- 50 공간 2 신촌, 파랑고래
- 공감 1 다원극 〈포스트 아파트〉와 연극 〈묵적지수〉 52
- 공감 2 전시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와 54 〈에릭 요한슨 사진展: Impossible is Possible〉
- 56 공감 3 책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과 〈댈러웨이 부인〉
- 58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 60 석관동에서 만나 이문동을 지나 쌍문동에서 작별하다
- 62 서정민의 썰(說)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박성연
- **서울 건축 읽기** 종로구 연지동과 효제동 64
-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66 봉준호 감독

WEBZINE +

- 70 웹진 [비유] 〈you,a sentence〉
- 72 웹진 [연극in] 2019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 74 웹진 [춤:in]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김매자

76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84 편집 후기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 · 편집** 전주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http://magazine.sfac.or.kr

발행일 2019년 6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 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 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다급함의 문제는

문화나 예술로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 예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흔히 장애인의 예술 창작이나 문화향유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예술 참여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하려는 욕구로부터 멀어지기

장애 예술가의 창작 및 향유지원에 관해 발언의 기회가 생길 때마 다 효율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 이미 장 애 관련 이슈는 차별과 소외의 맥락으로 전제되어 사회적인 '문제' 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 제로 현재 상황을 바라볼 경우, 그것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해 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을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관점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아름답지는 않 더라도 조금 다른 방향성. 혹은 조금 다른 공존을 상상할 수 있지 않 을까. 장애 관련 이슈나 상황을 문제로 전제하고 해결된 상태를 목 표로 두기보다 오히려 문화예술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호 한 해결점을 목표로 우수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 앞서, 현 재 국내의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자 하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 요하다.



- 1 2018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
- 2 2018 잠실창작스튜디오 '굿모닝스튜디오' 기획전시 〈흐르는 흐름〉 전시 오프닝.





장애를 바라보는 관념화된 시선의 파악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 보호되 기보다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힘든 존재로 전제되어 비장애인과 다른 공간,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숨을 쉬고 있 는 사람,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 천천히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화된 몸을 움직여 일반화된 속도로 일반화된 생산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간다. 이에 따라 삶의 기회에 있어 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안에는 교육 참여나 문화향 유의 기회도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 사 람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보통 보호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 일 부를 개선한다고 해도 쉽게 바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을 얼마나 당연하게 갖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장애인을 뭉뚱그려진 관념적 존재로 상상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 지팡이를 짚고 걷는 맹인,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정도로 그려지는 장애인은 사실 장애 유형 별로 특성이 매우 다르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나 어떤 사건으로 인 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장애는 어떤 면에서 충분히 상상하고 경험 가능한 영역 안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보통 '장애'는 관념화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장애인'은 도움이필요한 소외계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 그리고 비장애인도 장애, 비장애가 구분된 삶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비장애의 공존을 문화예술이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먼저 우리가 얼마나 분리된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대체 왜그럴까'라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시도 가능한 공존 방식을 상상할 수 있다.

현재 가능하지 않은 목표나 방식에 대한 의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상황을 오로지 해결하기 위해 문화나 예술을 활용할 경우, 어떤 차원의 공존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은, 혹은 부분적으로 해결의 순간을 만드는 소수만이 그 성과를 가져가게 된다. 그럼에도 구체적 근거 없이 모호한 목표나 방식을 공식화하고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7번 국도〉 배리어프리 공연 모습.

그것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로 전제되어 있던 장애인의 삶에 그것은 반가운 '희망'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쉬운 논리의 사회적 인식이 우리들 일상에도 작동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업이나 활동이 정말 가능한 목표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작동되고 있거나 (누군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작동될 여지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일수록 이러한 태도를 더욱 공식화된 언어로 고민해야한다.

모호한 희망 대신 가능한 시도부터

그런 맥락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의 방향성도 살펴볼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크레아(DDP CREA)에서 진행된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미래 포럼〈같이 잇는 가치〉'의 경우 장애인의 창작 활동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콘텐츠 중심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

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이 지속될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설계를 넘어 장애—비장애의 공존 방식을 다채롭게 모색하는 시도가 힘을 얻을 것이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형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운영단체지원사업'을 새롭게 진행했는데, 6월 3일 참여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 대상자를 장애아동·청소년으로 한정지었다. 이러한 시도가 장애,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으면서도 예술교육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정된 단체뿐만 아니라 재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입주 작가들이 참여하는 상호티칭워크숍도 진행되고 있다. 장애 예술가 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다른 감각 간의 교류와 만남을 지원하는 이 러한 시도가 사업적 성과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 확장된 질문을 던 지기를 바란다.

예술 현장에서는 비장애인 관람객 중심으로 발표되던 공연을 배리 어프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인 사업이나 행사를 단체나 기관이 주도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불편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기보다 재단이나 개별 단체, 기획자들이 낯설더라도 '현재 가능한 시도'가 무엇일자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장애 예술가의 창작에 대해

한편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장애 예술가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줄이는 문화예술 현장을 만들려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까. 이 광범위한 질문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이 장애 예술가의 사회 참여 기회로만 기능하지 않아야한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살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힘든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술이 기능할 경우, 장애인은 예술 영역 안에서 더욱 고립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머물 것이며 비장애인 중심의 예술 영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또한 예술에 대한 확장된 의미와 가치를 실험해보는 기회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둘째, 장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몇 가지 유형으로만 고정되지 않

아야 한다. 특히 최근 장애 예술가의 창작은 사회나 타인과의 관계 성보다 개인의 고유성에 집중하거나, 몇 가지 매체를 주로 다루는 방식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타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이나 새로운 매체에의 탐구가 지속되는 동시대 예술 안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칫 누군가의 창작을 장애의 관점으로만 해석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장애-비장애, 장애인-창작 활동, 장애-사회 등을 매개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 이러한 역할을 해 왔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은 '장애인이나 사회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예술 적 실험으로 나아가거나 전문화될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해지기도 한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별 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매개자이자 창작자이자 기획자인 이들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기회가 단절되지 않을

공식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의 요소를 사회적인 주제로 만나는 기회만 마련되지 않아야 한다. 장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그러나 장애는 우리의 일상과 그리 특별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장애를 특별한 주제로 부각시키는 문화적 기획을 늘리는 대신 서로의 삶이 얼마나 다층적으로연결돼 있는지를 살피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의 네 가지 의견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어떤 목표를 이룰 것 같은 희망과 더욱 거리를 두기 위함이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어렵고도 필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관심을 넘어 문화 다양성의 맥락으로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의 창작 및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라기보다 문화 다양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어떤 대상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문화 자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도', 장애에 대해관심을 가진 '누구든지' 각자의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예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로 기능하지 않아야한다는 것과 또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문화가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 이전에 우리의 인식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효율성을 전제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문화예술적인 방식과 거리가 있다. 우리는 효율적인 방안이 다급한 상황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비효율적인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 비장애, 그리고또 다른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우리는 효율적일 수 없는 방식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화나 예술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그렇게 불안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다른 속도로 서로를 만나며 다른 시선을 찾는 순간에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이 시작될 것이다.

글 최선영_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림으로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장애인의 삶에 예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맞은 새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치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었다. 무용학도였던 그가 화가이자 임상미술치료사, 공연 기획자 등 다양한 직함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교통사고 때문이다.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는 무용학과에 재학중이던 23살에 교통사고로 중추신경이 절단돼 전신마비를 겪게 됐다. 춤은커녕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수술 후 재활치료에 몰두했다. 굳은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운동을 하던 중, 그림을 만났다. 병원에서 만난 지인과 가족이 팔의 힘을 키우고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림 그리기를 권했다. "어려서부터 무용만 해서 그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죠. 처음 장애를 얻었을 때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춤만 추며 화려하게 지냈고, 장애인을 접해본 적도 없었죠.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정보도 얻게 됐죠. 그중 하나가 그림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철저히 재활이 목적이었다. 재활치료를 계속하다 보

면다시 일어나서 춤을 출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학원이나 화실을 다니자니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작은 방에 이젤과 스케치북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붕대로 붓을 손에 감고 매일 10분씩 시간을 늘려가며 그렸다. "처음엔 초등학생 수준이었죠. 그림의 재료나 스케치 방법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렸어요. 조금씩 팔에 힘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늘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악을 들으며 그림 그리는 동안만은 혼자만의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시작할 때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의 절망과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을 얻었다. 다시 일어나 걷기는 어렵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누드화를 그렸다. 인체 비율에 대한 공부 없이 보이는 대로 그렸다. 그러다가 주변에 무용 잡지가 많아서 무용수 사진을 찢어놓고 따라 그리다 보니, 어느새 방이 무용수들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그로테스크한 느낌이었어요. 무용수의 얼굴이 어두운 초록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후에는 남편을 만난 영향인지 좀 더



밝아졌죠. 제가 춤추는 상상을 하며 그려서인지 작업하는 게 행복했어요. 과거에는 무대에서 춤을 췄다면, 지금은 캔버스 위에서 또다른 춤을 춘다고 느꼈죠. 그림을 하나둘 완성하는 게 안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용수의 손끝과 발끝을 신경 쓰며 그리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 제 주위에 무용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만 같았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고 미술 대회에도 참여했으며, 시작한 지 10년이 됐을 때는 개인전을 열기에 이르렀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단절된 생활을 하던 그에게 그림은 세상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

예술을 통해 한 걸음 세상 밖으로

그의 도전은 그림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고 후 10여 년이 그림을 만 나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시기였다면, 그 후엔 남편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임 신과 출산 후 심한 우울증이 그를 덮쳤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임상 미술치료였다. "제가 치료받을 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됐고, 또 과거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미 술치료의 일환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 경험이 다른 장애인에게 도 적용되겠다는 생각에.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갔 어요." 임상미술치료를 전공해 자격증을 따고. 〈임상미술치료가 척 수손상 환자의 우울감 감소와 재활 동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 는 논문으로 학위도 얻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병원과 장애 관련 시 설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했다. "저 같은 척수손상 장애인들은 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절망과 좌 절감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클 수 있죠. 제게 그림은 교육이라기보 다는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다른 장애인들도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 어요. 더 많은 장애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2007년에 한국 장애인표현예술연대를 설립했습니다."

김형희 대표는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에서 미술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표현





1,2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비상).

미술아카데미'가 대표적. 참가자들이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춤 등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림을 그렸다. 해마다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치료를 넘어 화가를 양성해보고 싶은마음에 '장애 여성 화가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는 여성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밖으로 나올 수있도록 도왔다. 집에만 있던 그들이 나들이하듯 화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그림을 그리고, 여느 화가들처럼 인사동에서 데뷔전도 치렀다. 장애 예술 관련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고, 신선하고 성실한 활동 덕에 우수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김형 의 대표의 마음에는 여러 이야기가 쌓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그는 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시인과 소아마비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종합예술이라 할수 있는 뮤지컬에 담았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2017년에 초연한 뮤지컬 〈비상〉이다. "장애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술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해

김형희 대표가 음악극과 무용극을 제작하며 얻은 노하우가 집약된 〈비상〉의 초연은 3회 모두 매진됐다. "모든 예술 장르가 복합적으로 담긴 공연이었어요.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공연 한 편을 보면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장애인보다 오히려 비장애인 관객에게 유익한 공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만의 공연이 아니라 비장애인 전문가들과 함께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비장애인 관객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고려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작 과정은 무척 힘들었다. 모든 작품을 올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라 더욱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 우선 공연장의 장애인석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공연장 대부분이 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법이 장애인 예술가에게는 맞지 않았다. 무대 역시 장벽이 높았다.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없었고,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알맞은 무대 바닥을 마련해야 했다.

배리어프리 공연을 제작하는 데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을 위해, 객석 내에 화면 해설용 부스를 설치하고 별도의 대본 작업도 해야 했다. 안내견과 동행하는 이들을 위한 좌석도 필요했다. 예산은 물론 이해가 부족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공연 후 설문조사를 해서 관객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는 종종 봤지만 공연 관람은 처음이라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객석 2층에 화면 해설용 부스를 설치하고 그쪽에 시각장애인 관객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앞좌석에 앉고 싶었는데 좌석이 뒤쪽이라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배우들의 호흡과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저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관련한 정부 예산은 얼마 안될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든 문제는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는데, 우선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알맞은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지원이나 평가, 심사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야죠. 지금은 그냥 기존의 특정 단체들이 예산을 나눠 갖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 예술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맞는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좋은 사업은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장애 예술가들 대부분은 장애를 갖고 나서야예술을 접해요. 이전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예술가로서 새로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그들이 세상에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 이민선_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오계옥 사진 제공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같이 잇는

가치'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미래 포럼

현장을 가다



다큐멘터리〈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의 저자 김원영 변호사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 함께하는 일상과 문화예술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같이 잇는 가치〉라는 제목의 포럼을 지난 2월부터 공동 기획하고 준비해왔다. 포럼은 두 가지 테마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일상의 공존〉을 시도하는 실천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둘째 날에는 〈창작을 위한 공존〉을 주제로 장애—비장애 예술가와 함께 지금과 달리 얼마나 새롭고 재미있는 예술 활동이 가능할지를 이야기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른이 되면〉의 한 장면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같이 잇는 가치〉 포럼의 막이 올랐다.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어른이 되면〉은 13살 때부터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온,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 장혜정 씨의 탈시설 이야기이다. 장혜정 씨는 탈시설 후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작가로서 첫개인전을 열었다.

예술로 〈일상의 공존〉을 시도하는 실천가들의 이야기

첫째 날 열린 〈일상의 공존〉에서는 4명의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먼저 안무가 엠마누엘 사누, 고권금(쿨레 칸)은 '자존과독립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춤추기'라는 제목으로 노들장애인 야학







- 포럼에는 이틀간500여 명이 넘는인원이 참석했다.
- 2 첫째 날〈일상의 공존〉에서 강연하고 있는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

에서의 장애인 대상 만당고 춤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과 말 사이에는 틈이 있고 그것을 채우는 춤이 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며 춤을 출 때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춤이 발달장애인에게 자존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립을 이루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남실 집행위원(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은 발달장애 청년의 반복되는 말을 시로, 노래로, 공연으로, 뮤직비디오로 만들며 함께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가 어떤 세상에 적응해야 하지? 그들만의 독특함 같은 것을 다 없애고 모두 전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쉽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할까?"라는 메시지로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서 오한숙희 이사장(사단법인 누구나)은 "말로만 하는 소통은 어렵지만 예술의 언어로는 누구나 소통할 수 있다"는 주제로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자기 자신, 친구들,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게 된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김지우)의 강연을 통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미디어의 시선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나에게 대견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는이들이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디어가 어떻게 노출해왔는지 생각해보게 됐다." 그는 또 "앞으로 '장애인 유튜버'라고 해서 관심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또 유튜버가 나왔구나'라고 바라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녁 9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200여 석의 자리를 모두 지키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모두가 공존하는 일상이 멀지 않았으리라.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확장하는 〈창작을 위한 공존〉

둘째 날 열린 〈창작을 위한 공존〉은 '다른 몸으로', '다른 감각으로', '더 멀고 넓은 곳으로' 등 3부로 구성되었다. 오프닝은 '장애여성공 감 춤추는 허리'의 배우들이 자신들의 공연 안내문을 관객들에게 낭

- 1 둘째 날 〈창작을 위한 공존〉에서 오프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
- **2** 둘째 날 3부 '더 멀고 넓은 곳으로' 토론 전경
- **3** 둘째 날 2부 '다른 감각으로'에서 발제하고 있는 무승현 작가.



독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되었다.

"쉽게 감동했다 밀하지 마시오. 단 한 번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공연하느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지 마시오. 나와 당신은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여 무수한 공적 공간을 흔들고 난입하고 탈환할 것입니다."

공연 후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의 서지원 연출과 이진희 기획자는 전시되는 몸으로 살아가는 장애 여성이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다. 서지원 연출은 "이 무대에서 장애를 극복하거나 삭제하거나 장애를 보이지 않고 연극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고민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공적인 무대를 선택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 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획자는 무대 위에서 장애 여성은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의 나'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나'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대는 장애 여성의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도전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지수 대표(극단 애인)는 관람객들에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고도를 기다리며〉등 부조리극을 공연하면서 장애 배우의 움직임, 발성, 언어가 극 중 인물의 특성을 보다 극대화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구시립무용단의 김성용 예술 감독은 디브이에잇(DV8), 스탑갭 댄스 컴퍼니(Stopgap Dance company)의 사례를 들어 지금 현대무용은 더 새롭고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제약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고 무용예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2부 '다른 감각으로'에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 의 장애 예술가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한승민, 정은혜, 문승현이 작업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승현 작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생체시계가 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시간을 이해할 때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미하일 바흐찐의 말을 인용하여 서로 다른 각자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과 생활이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활의 언어가 천박해지는 것은 예술의 언어가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고, 예술의 언어가 고루해지는 것







은 생활이 각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는 장애 예술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소통을 위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어서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는 정은혜 작가가 2,000여 명의 인물화를 그리면서 사회 속에서 관계 맺기를 시작한 것처럼, 발달 장애인이 굳이 가족을 떠나 시설에 가지 않고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 맺기를 하면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2부의 마지막 발제자인 최선영 대표(비기자)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미 충분히 불합리하기에 조금만 더 삶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장애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했다.

'더 멀고 넓은'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3부에서는 장애 예술 영역의 고민을 공유하고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모아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획자, 경영자,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래은 연출은 작품과 극장 공간에 따라 배리어프리를 확장해야 하며, 정진세〈연극in〉편집장은 예술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면 예술가에게 장애,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감수성 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에서도 장애—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만든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양성에 대해 자각ㆍ존중하고 장애 예술, 공존을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틀간의 포럼은 긴 여운을 남기며 종료됐다.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의 리듬, 삶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예술이 삶을 이끌며 일상이 예술 을 풍요롭게 하는 날까지,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목소리를 담는 공 존과 연대의 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김수현_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2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 양일간의 포럼은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www.youtube.com/user/sfacmovie)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마고

'여성'과 '사랑'에 대한 고찰

사 진 작 가 황 예 지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젊은 사진작가 황예지, 그의 전시 〈마고〉가 지난 6월 18일에 시작해 오는 7월 20일까지 종로구 낙원상가 디피(d/p)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여성'과 '사랑'을 주제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스냅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획일화된 사회적 강요에서 탈피해 주제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시도한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진한 물음표를 남긴다.



"작은 나는 엄마의 몸에서 일찍 떨어지고 싶어 했고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묶어 올린 채 두 달을 살았다. 그 배에는 생명이 자주 오갔지만, 탄생은 적은 일이었다. 나는 세 번째로 태어났고 두 번째로 살아남았다. 첫 번째로 태어난 언니와 나 사이에는 삶이 하나 있었다. 삶의 주인이었던 이는 우리와 같은 여자였고 모두가 눈을 떼기 어려워했다고 한다. 실체를 마주한 적 없는 유령이지만 내게도 그랬을 것이다. 엄마에게 유령을 말하면 슬펐다고, 아주 슬펐다고 대답한다. 죽어가는 딸을 안고 달리는 시간은 내가 셈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열 달의 형상과 현상이 사라졌다. 이름은 없었다. 의사는 상실을 무뎌지게 하려면 누군가를 만드는 일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되었다. 나는 어떤 상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내가 몇 살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의 축이 자주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유령과 나의 접촉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한다. 내내 애도했다."

작가노트에서 우연히 접한 이 글은 잔잔한 여운을 줬다. 몇 문장으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겪었을 긴장, 분노, 탄식이 내게도 공명해왔음이 분명하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렇게 시작한 인터뷰를통해 그가 지금부터 멀지 않은 과거에 사진을 전공한, 젊은 예술가임을 알았다. 전시 경험도 동료들과 함께했던 두어 번의 단체전이전부일 정도로.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애 첫 지원금을 손에 쥔 순간이 이번 전시의 방아쇠를 당겼을지 모른다. 전시 〈마고〉의 사진작가 황예지. 그는 이번 전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과 사랑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다룬 전시입니다."

획일적인 방식과 사회적 강요에 반기를 들다

그는 전시 주제를 '여성'과 '사랑'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다층적'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사랑을 대하는 방식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해

석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사회가 준 일방적인 감정을 가미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강요받았기에 이토록 간절하게 말하는 것일까. 그는 전시의 제목을 〈마고〉라 지었다. 그런데 원래는 〈러브퓨어 게임〉(LOVE PURE GAME)이었단다. '순수한 사랑'이라 일컬었던 이전 제목을 부제로 돌리면서 느낌만 살린 것으로 보인다. 마고,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언뜻 이해하지 못했다.

"남성 없이 인간의 시초를 만든다는 창조주 '마고할미'에서 따왔 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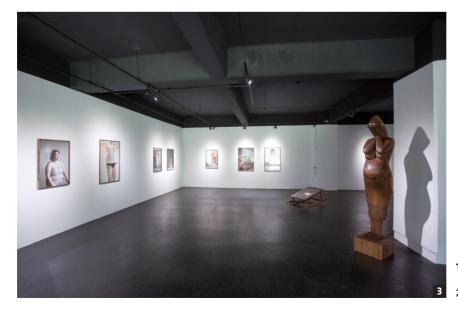
인간을 만드는 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남성 없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자웅동체도 아니고 엉뚱한 상상이리라. 하지만 이것은 전시의 주제와 연관이 깊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여성의 초상을 찍는 데 관심을 두었다. 17살부터 시작된 제도권 교육 아래의 사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주제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에 시작한 '여성 초상'이 '여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단다. 물론 피사체는 엄마와 친언니로 시작했다. 그가 가족을 찍기 시작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집이 갑자기 힘들어졌고, 엄마는 몸아 아파살기 위해 나갔죠. 간혹 연락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살갑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제 곁을 떠났던 엄마의 빈자리는 6살 위의 언니가 대신했어요. 얼마 전 엄마가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10년 만에 모인 가족은 서로를 낯설어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순 탄치 않은 가정사 때문에 평범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부 풀려진 어색함을 억누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가 선 택한 방법은 사진이다. 엄마와 언니는 그렇게 작가의 피사체가 됐 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 서기도. 마음을 여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래도 반복해서 찍으니 그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 기 시작했다.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본인만의 성정체성이 새로이 확립 됐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바이섹슈얼임을 알았다. 그







1 〈신호〉(Signal), 2019. 황예지 작가의 언니가 유리알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2,3 〈마고〉전시 전경. 때부터 획일화된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 내리는 사회에 저항했다.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라는 말은 그에게 사랑을 바라보는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처음 시작한 '마고할 미'의 어원으로 되돌아가보자. '남성 없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상상은 '반드시 이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작가는 '여성'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와 언니를 찍은 사진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아무도 없는 계절'이라 생각한 〈절기〉입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도와 같을까요? 제게 보호자가 없다는 생각과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 언니의 존재를 담고 싶었어요."

가족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상이 여성으로 넓어졌다. 각자의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들. 작가는 여기에 '숭고'라는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 그는 '여성다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정의 내린다. "여성이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나요? 처연해야 하나요? 여성을 '있는 그대로'보지 않고 사회가 준 감정을 가미한 것이죠. 강인한 여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사진은 약간 어그러져 있어요. 가령, 튼살들. '미'와 '추'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숭고하게 다루고 싶거든요."

《마고》는 '사랑'을 주제로 공간별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공간은 키워드에 맞춰 작가의 작업을 저장했다. 다른 곳에선 가족과성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나머지는 동료들에게유형학/주제론, 과거의 이미지 생산법을 제시해 사랑을 구현했다.이는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킨 것이다. 사진계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행위를 무효화하고 젊은 사진의 역량을 호소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전시의 메인 공간은 작가가 겪고 동침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자신을 떠났던 엄마와 엄마 역할을 대신했던 친언니를 시작으로 학창시절을 지나 양성애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사진으로 풀어냈다. '자궁, 히스테리아'라는 단어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을 미화하지 않고 픽션으로 조립했다.

전시의 대상이 '자궁을 가진 사람들'로 정해졌다. 역시 사랑에 대한 다층적 해석과 연관돼 보인다. 왜 그들일까. "엄마도 언니도 친구 들도 저마다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여자로서 역사가 다르거든요. 역사를 모아서 또 다른 하나의 큰 역사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옛것과 새것이 충돌한다고 믿는다. 이는 수고롭게 채집하면서 동시에 떠나보내는 일이다. 누구는 명징한 것 같으면서도 명징하지 않다고. "한국 사회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사랑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혹은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죄책감을 자신의 시각에 대입하죠. 획일화된 사랑에 사소한 대항을 하고, 물음표로 끝나는 팻말을 관객에게 넘길 거예요. 사랑에 대한 탈피와 고찰을 작게는 개인이, 크게는 사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바랍니다."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공개했다.

"하나의 신화가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 태어난 순간부터 여자라는 이름의 연대기가 시작되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여자의 생을 빌렸고 여자를 사랑했다. 여자의, 여자라서, 여자인. 그 이름이 내게 드넓다. 숭고한 표정을 짓는다. 쓰러진 등줄기는 능선이 되었고 갈라진 피부는 개천이 됐다. 서로의 팔목을 잡고 원을 그린다.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우리야. 비릿한 만큼 창조야."

사진의 '문장 구조'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이미지를 생산하며 재현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금은 대중이 이미지를 수집하기 쉬운 환경이됐다. 게다가 사진은 손대기 쉬운 매체로 변했다. 반면 전시장 안의 사진은 속도감에서 조금씩 뒤처진다. "현재의 한국 사진 생태계는 기형적이고 불안정해요. 전시장에 걸리는 사진은 유형과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젊은 사진 사이에서는 '스냅'을 파괴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만의 사진을 읽는 눈이라며, 이것을 가독성이라 말한다. 젊은 이미지를 전통의 잣대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읽으려는 노력과 인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현재의 '이미지 생태계'와 '사랑의 혼동'이 매우 흡사하다하다

'사진은 예술이다, 혹은 아니다'라는 논쟁이 외국보다 한 차례 늦게 시작된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스냅 사진은 예술이다, 혹은 아니



**한국 사회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사랑을 포장합니다. 획일화된 사랑 에 사소한 대항을 하고, 물음표로 끝나 는 팻말을 관객에게 넘길 거예요. 사랑 에 대한 탈피와 고찰을 작게는 개인이, 크게는 사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다'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스냅 사진'을 가벼운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담화는 최근 몇 년간 암묵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젊은 사진가들은 전시장이 아니라 스크린 혹은 재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가독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사진예술의 속도가 불어나는 것과 다채로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고》는 그가 찍은 14점의 사진을 비롯해 그동안의 작업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 어머니의 토템을 확장시킨 조형물을 전시한다. 고등학교 이후 줄곧 사진을 공부하면서 기성 교육을 받았지만 그동안인정받지 못했던 '스냅'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진 14점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한 장씩 설명하던 작가는 이내 대답을 주저하며, "단편적인 이미지보다는 전체 사진들의 흐름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연속된 이미지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문장 구조'를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작가는 이것을 '조어술'이라 불렀다. "전시는 사진의 묶음으로 이뤄졌어요. 몇 문장으로 구성된 단편들이배열된 것처럼요. 사진의 순서에 따라 문장의 어순이 정해지듯 말이죠."

체감을 위한 변주

사진은 시각예술이다. 시각은 광각이 있어야 가능한테 사진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전시의 주제를 보다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다른 조건이 제시됐다. 그것은 작가가 전하려는 느낌이 관객과 충분히 공감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가 '체감'하길 원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결과를 보완할 감각으로 '청각'과 '후각'이 필요했던 것이다. 작가는 주제와 어울리는 향을 준비했다. 여기에 공간과 작업 분위기를 해석하는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그가 직접 쓴수필을 낭독할 성우까지 섭외하면서 관객이 본 전시에 적극적으로 빨려 들어가길 유도했다. 전통적인 독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 그는 변주를 고안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

"시각적인 정보들은 대중이 흥미를 잃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새로 운 방법은 사진이나 사랑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사진** 조현우 **사진 제공** 황예지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글은 한겨레신문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 게재됩니다.



경력단절 엄마의 몸짓



전미라 무용가

전미라는 세종대 무용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현대무용제(MODAFE) (Mother Earth)(2011), 응복합공연예술축제(PADAF) 〈Triangle Room〉(2016)으로 신진안무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사업무용 부문에 〈신성한 캐노피〉가 선정되었고, 2004년부터 툇마루무용단 단원을 거쳐 현재는 부대표를 맡고 있다.

"규칙과 억압에 억눌린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2019 국제현대무용제' 출품작인〈신성한 캐노피〉(5월 22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안무를 맡은 무용가 전미라가 밝힌 공연의 모티프다.

2005년부터 댄스 뮤지컬 〈겨울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만큼 독보적 위치를 얻었던 그는 2011년 결혼을 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이 됐다. 아이를 낳고 생긴 엄마로서의 고민을 무용으로 표현하고 싶었단다. "5살, 7살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생각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이들의 말과 행동, 일상적인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나 자신의 사악한 모습에 실망했거든요."

공연은 훈육하는 엄마와 통제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세 명의 무용수가 몸으로 표현한다. 작품의 제목으로 천막을 뜻하는 캐노피에 '신성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는 부모가 행하는 권력에 주체성을 잃는데도 끊을 수 없는 복종 관계로 귀속되는 것에서 부모가 신성한 존재가 아닐까 고민했어요."

무대 위에선 안무가들에게 지속적인 통제가 내려진다. 예컨대 '문지방을 밟지 마라'라는 강한 명령어는 세 명의 무용수를 부모에게 억압받는 아이들처럼 통제한다. 여기엔 영화 〈도가니〉에서 사감 역을 맡았던 김주령 배우가 강렬한 부모 목소리로 출연한다. 작년에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초연한 내용 중 핵심만 뽑아 제작한 이 작품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신을 바깥세상과 단절시킨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송곳니〉와 닮아 보인다.

아이를 기르며 겪었던 고민을 작품에 녹인 그는 이번 작품이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올린 거예요. 괴물 같은 엄마가 아니라 친구 같은 엄마, 내 손아귀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주체적인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유튜브 속 클래식 구현





추 예 지 크 리 에 이 터

추예지는 한양대 관현악과를 거쳐, 도쿄음악대 대학원에서 기악과 타악기를 전공했다. 연세대(2006), 성신여대(2006), 음악교육신문사(2009), 수원문화진흥원 콩쿠르(2010)에서 입상했다. 금호아트홀에서 마림바 독주회(2011), 국제 마림바페스티벌 대만(2017), 도쿄음악대 100주년 기념관 마림바 독주회(2017)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세컨더리 퍼커션 건반 주자이며,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

"이제는 경쟁보단 치유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클래식을 전공한 크리에이터 추예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밝혔다.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그가 해왔던 음악에 아쉬움을 느꼈다. "타악기를 전공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가 전공한 마림바(나무로 된 건반들이 배열된 실로폰의 한 종류)는 크기가 커서 불러주는 곳도 많지 않았단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한 아쉬움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세컨더리 퍼커션'을 결성 하는 계기가 됐다. 팀 이름을 '2차적 타악기'로 지은 이유도 "1차적인 본능보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라고 고백했다.

"유학 후 대만에서 열리는 콩쿠르를 1년간 준비했어요. 경연 전날 약을 잘못 먹어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는데, 결과만 중시하는 경쟁에 지쳤어요." 그는 채점받는 연주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렇게 눈길을 돌린 것이 1인 미디어로 주목받는 유튜브. "마림바는 검색해도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음악, 가요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커버곡을 연주하면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작된 영상은 빠른 연주곡으로 유명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었다. 현재 조회수가 무려 83만 번을 넘는다. 음악에서 미디어로 방향을 바꾼 것이냐고 물으니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원하는 바는 변함없어요. 많은 사람이 마림바 연주자로 봐주길 바랄 뿐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악기에 관심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는 함께 공부했던 연주자들을 영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스팤TV 채널(youtube,com/user/sfacmovie)을 통해서 공개된다.



레트로 소리극은 뭐요?



신창렬 음악감독

신창렬은 단국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작곡가와 제작자로 활동한다. 대표작으로 〈Acoustic island〉, 〈환상노정기〉, 〈최생우진기〉, 〈칼의 춤〉, 〈제3의 시간〉, 가야금합주곡〈꽃섬〉, 국악관현악협주곡〈월식〉이 있다. SBS 드라마〈바람의화원〉, 〈대장금〉에나메이션타이틀곡 제작과 음악 작업에참여했으며, 현재는 창작 국악 그룹'그림(The林)'과 '모로뮤직' 대표를 겸하고 있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성춘향〉과 〈춘향전〉, 판소리, 그리고 '폴리아티스트'.

6월 5~23일 정동극장에서 공연한 레트로 소리극 〈춘향전쟁〉은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 무대에 모여 새로움을 창조했다. 1960년대의 소재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레트로'(복고풍) 소리극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폴리아티스트(음향효과를 위해 소리를 만드는 사람. 신체 부위와 사물을 활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냄)를 처음으로 무대의 중심에 세우면서 아주 새로운 '뉴트로' 공연이 되었다. 음악감독을 맡은 신창렬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폴리아티스트가 판소리꾼과 함께 극을 이끌어갑니다"라고 극의 구성을 설명한다.

〈춘향전쟁〉은 1961년 동시에 개봉된 영화〈성춘향〉과〈춘향전〉을 둘러싼 숙명의 소리 대결을 다루는음악극이다. 공연에선 당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신상옥 감독의〈성춘향〉이 상영되었는데, 무대 위에선 신상옥 감독 역할을 하는 판소리꾼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폴리아티스트의 밀고 당기는 기싸움이 이어졌다. 신창렬음악감독은 지난해 말 성수아트홀에서 선보였던 초연과 달리 이번에는 "구현하는소리를 무대 위에서 100% 라이브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 후 단체에 소속돼 연주하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어 창작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신 감독은 퓨전국악 그룹 '그림(The林)'을 창단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새로운 악기, 장르와 끊임 없이 협업을 시도했던 것과 연관해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작품처럼 판소리에 음향효과를 결합한 시도는 지금껏 못 봤어요. 그것은 숲(林)의 '뻗어나가는' 속성과 같다고 봐요. 앞으로도 국 악의 소재에 다른 장르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연극은 배우의 것





문삼화 연출가

문삼화는 극단 유(1999~2009)에서 연극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공상집단 뚱딴지'의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연극 베스트 7(2013), 제(6회 김상열연극상(2014)과 올해의 연출가상(2017)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마귀〉,〈일곱집매〉,〈라이방〉,〈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지상 최후의 농담〉,〈바람직한 청소년〉,〈안녕, 아라발!〉,〈애니깽〉이 있다.

"연극의 꽃은 배우입니다."

연출가 문삼화는 6월 7~22일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무대에 오른 〈거리의 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밝혔다. 10년 전, 스승이었던 유인촌으로부터 독립해 무대에 올렸던 초연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평론가적 분석을 지양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연출가는 "테이블에 앉아 대본을 보며 내뿜는 분석은 배우의 자유로운 해석을 제한할 뿐"이라며, 배우들에게 개막 직전까지 대본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처럼 늘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자신만의 연출 기법이란다. 그래서 극단명도 '공상집단 뚱만지'인지 모른다.

그의 작업 스타일은 다른 곳에서도 잘 나타난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주디스 톰슨의 동명 소설을 직접 번역했는데, 원래 다문화를 상징하는 캐나다의 현실을 반영해 유색인종, 이민자 등 소외된 자들이 등 장한다. 그러나 이 연극엔 단절된 소통과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처럼 원작 본연의 뿌리를 가진 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불예측성을 고집한다. "영문학자의 번역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적합하죠. 그런데 공연에도 그럴까요? 배우들의 살아 있는 연기를 위해 최대한 구어체로 번역합니다." 〈거리의 사자〉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소녀가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집을 찾아 헤때는 내용이다. 여기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교사, 암으로 죽어가는 여자 등 비극적 인물이 출연한다. '옴니버스처럼 등장하는 비극의 종합세트'라고 이르는 그는이 연극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얼마 전 종방한 드라마의 주연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그냥 당신의 삶을 사세요'라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않을까요?"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예술로 열어가는 행복한 미래

신한은행 사회공헌부 신윤진 CSR 사업 팀장

신한은행과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신한은행 사회공헌부의 신유진 CSR 사업 팀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진행한 신한은행 본사의 카페 두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하는 곳이다. 공간 운영 자체가 사회공헌사 업인 셈이다

신 팀장은 실제로 카페의 청소년들과도 매우 친밀해 보였다. 반갑 게 인사하고 새로운 메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고 커피맛도 좋았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카페 두드림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신윤진 팀장(이하 팀장) 이곳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법뿐 아니라 매장에서 근무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두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해도 바로 일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 같이 출근한다는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도 엄청 보람을 느껴요. 수료식 때 학생들과 같이 많이 울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수료식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건가요?

팀장 6개월 인턴 기간이 있어요. 급여나 근무시간 면에서 근무조건 도 좋은 편이에요. 이후 취업 알선이나 진학 등 사회로 돌아갑니다.

재단 신한은행의 사회공헌은 전체적으로 신한금융지주사의 사회

공헌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팀장 신한이라는 금융그룹이 크다 보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만 하기보다는 복지, 장학,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금융의 본업을 살려서 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올해에는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 단 성수동 두드림스페이스도 그런 사업 중 하나겠네요

팀장 맞아요. 각 대상의 생애주기에 맞춰 준비되어 있어요. 금융교육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사업 또한 마찬가지죠. 생애주기별로 연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가 여럿 있습니다. 계열사별로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이 있을까요?

팀장 계열사별로 따로 차별화하고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나눠 접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은행이 청소년을 주로 담당해요. 소외계층 아동은 카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보험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







1 2018 신한갤러리-잠실창작스튜디오 연계 전시. 2 2019 신한은행 후원사업(서커스예술놀이터).

입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보험에서 맡고. 증권에 관심 많은 연령층은 증권이 맡는 식이에요. 그리고 〈희망사회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희망하는 모습, 좋은 미래 등을 만들기 위해 그룹사 전체가 분담금을 모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재단 신한은행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팀장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신한아트홀과 2개의 갤러리(광화 문, 역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 영재 발굴 프로젝트인 신한음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클래식 영재를 발굴하는 음악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직접 콩쿠르를 열어서 클래식 영

재를 발굴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성악,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선정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해외 유명 교수에게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아트홀에서 2번 정도의 개인 연주회를 열 어주기도 하고요. 대상은 고등학생 나이대로 제한하고 있어요. 올 해까지 11회 진행했습니다.

재단 사업이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제법 브랜딩과 영향력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팀장 맞아요. 순수하게 클래식을 지원하니 클래식 분야의 교수님 들께서 많이 칭찬하십니다. 저희가 음악회와 관련해 의논할 게 있어서 선생님들 모임을 요청하면 바쁘셔도 꼭 시간을 내서 함께해주시죠. 이 상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해주시는 거죠. 처음 음악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담당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해외 마스터클래스에는 직원들이 직접 수상자들을 데리고 가요. 줄리아드에서 아침마다 2시간씩 개인 연습실에서 레슨을 받게 하고, 학생들의 식사까지 직접 챙기죠.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해해요. 줄리아드 교수진들도 "수상자들이 너무 훌륭하다. 탁월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인정해줍니다.

재단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는 방식인가 보군요.

팀장 그렇죠. 뉴욕에 있는 동안 식사뿐 아니라 전시회나 뮤지컬, 음악 프로그램, 링컨센터 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상자들끼리도 친해지고 음악상 기수별로 선후배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어머니들도 "연주자답게 대우해주는 콩쿠르"라고 이야기하세요. 앞으로도 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재단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팀장 제가 그 부분에 관심도 많고,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 사회공헌사업의 기본이에요.

어느 파트에서 무얼 하든,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서, 그 대상자를 끌어들여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한은행 사회공헌사업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은행장님은 기왕이면 얇고 넓은 것보다 깊은 게 더 좋다고 하세요. 카페 두드림 청소년들과는 저희뿐만 아니라, 은행장님도 엄청 친해요. 청소년들은 은행장님을 만나면 "은행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해맑게 인사해요. 우리 직원들은 다 "은행장님 오십니다" 이러는데. (웃음)

재단 갤러리 이야기도 했으면 합니다. 음악과는 또 다른 분야인데요.

팀장 신한갤러리는 목표가 뚜렷해요. 새로운 작가들, 미술 활동을 막 시작해서 전시 기회가 없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전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재단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장애인 작가 전시를 연 것도 그 일환일 듯합니다.

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7번의 전시를 여는데, 5번은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하고, 2번은 기획전을 열거든요. 그 기획전 중 1번은 장애인 작가의 전시를 열어요. 공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시 기획에, 도록 제작, 오프닝 파티 비용도 부담하고, 중간에 관람객과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 시간도 마련해요.

재단 작년 신한갤러리 연계 전시에 이어 올해는 서커스예술놀이터와 신한두드림스페이스 연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인데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팀장 어떤 일이는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전문가 집단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할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이 잘하는 게 있고,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이 절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문화재단이 제일 잘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단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문화예술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글 이승주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최성열

신한음악상?

신한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해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제정한 시상 제도이다. 2009년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10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역대 신한음악상 수상자와 발달장애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 콘서트를 개최했다.

신한은행-서울문화재단 연계 사업

① 신한갤러리-잠실창작스튜디오 연계 전시

국내 최초, 유일한 시각 분야 장애예술인 전문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신한갤러리가 함께 기획하는 전시.

② 유망예술지원 후속지원사업

신진에서 중견 단계로 넘어가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지원받은 예술가를 3년 차까지 지원한다. 전시 장소(신한 두드림스페이스 아트스탠드, 서울 성수동 소재)와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2019년 현재 5명의 예술가가 선정되어 전시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③ 서커스예술놀이터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및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해 신체 활동과 예술 체험을 결합한 서커스를 활용해 예술놀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거리예술 시즌제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작지만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mark>공습</mark>, 도전받는 도서정가제

2019 서울국제도서전 전자출판 콘퍼런스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6시 30분

장소 코엑스 B홀 이벤트홀1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연구소

진행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발제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지영균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eBook 사업팀 차장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강일용 아주경제 기자

토론

정우영 시인/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문화산업정책센터 정책위원





구매가 아닌 접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독경제는 음악과 영화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출판 생태계에 출현한 구독경제와 현재 시행중인 도서정가제가 공존할 수 있을지, 새로운 독자와 시장 창출에 기여할지, 출판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넷플릭스'로대표되는 구독경제 시대에 출판산업과 플랫폼 경제가 공존하기 위한 보다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019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같은 주제로 지난 5월 9일 열린 세미나의 내용을 보완해 진행됐다.

발제 1 미국 등 월정액 서비스 성공 요인과 도서정가제 국가의 구독서비스 현황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전 세계적으로 구독경제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 구독 모델 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디오산업에서는 넷플릭스(Netflix), 음악 산업에서는 스포티파이(Spotify)가 성공했다. 출판산업에도 다양한 구독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2010년 러시아의 '북 메이트'에서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4년에 나온 아마존 의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는 전자책 시장의 60%를 장 악하고 있다. 저자에게 로열티의 70%를 주는 거래 조건과 연동해 단숨에 100만 종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면서 회원 수를 늘려간 것이 성공 요인이다. 현재 14개국에 진출 했다. 출판사에게는 쪽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준다. 쪽당 5.45원으로 250쪽의 책은 1,362원이다. 국내 '밀리의 서재'는 10분의 1 정도이 다 전자책은 매절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출판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판사에 정산해주는 금액이 오를지에 대해서 는 부정적이다. 정산법이 각기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우리나 라에서는 부담스럽다. 전자책은 한 권 판매하면 140원에서 250원을 받는다. 저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서정가 제와 구독서비스는 솔직히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독일은 강 력한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독서비스는 제외시켰다. 프랑스 에서는 구독서비스가 정가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내린 다. 유럽은 출판사가 정가를 책정한다. 구독서비스는 유통사가 서 비스 요금을 책정하게 하면 안 된다.

구독서비스는 부담 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읽어볼 수 있고, 해지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한 달에 두 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넷플릭스는 무제한이라 성공했다. 국내의 무제한 구독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좋지만 현재 가격 경쟁이 붙은 상태다. 다독자에게는 좋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 달 구독료 5,000원도 아깝다. 한국은 독서량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적다. 독서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넷플릭스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독서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독서비스를 걱정하기보다는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발제 2 독서문화의 확산이냐, 플랫폼 경쟁이냐

지영균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eBook 사업팀 차장

국내의 구독형 서비스 모델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음원과 영상뿐만 아니라 책 서비스 자체 도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변화와 밀접하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독자를 한가운데 놓고, 고객에게 제공할 경험과 서비스, 출판사와 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 작가와의 수익분배를 고민했다. 핵심은 유 통사업자이다. 고객의 기준은 이미 넷플릭스와 킨들 언리미티드이 다 구독서비스는 도서정가제와는 거리가 있는 대여형 서비스이다 국내에는 예스24 북클럽,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등이 있다. 고민은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다. 매출이 적어 100만 명 이상으로 확장해야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유통사업자들은 책을 읽지 않는 독자를 어떻게 끌어들일지 고민하게 되었다. 가장 큰 고 민은 플랫폼 사업이 기술 기반 사업이라는 것이다. 국내 유통사업 자들은 IT 회사가 아니다 보니. 기존의 서비스 환경에 구독 비즈니 스 모델을 얹었다. 구매 후 다운로드받는 형태는 불편해 스트리밍 으로 해야 하지만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처럼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는 어려워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다양 한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제한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느낄까.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교보문고는 4만 2,000종인데 고객은 책이 없고 돈이 아깝다고 한다. 보다 많은 출판사들이 콘텐츠를 제 공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현재 하루 100명 정도 가입한다. 여성과 35~50세 고객이 많다. 첫 달 무료 구독 후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비율은 20%가 안 된다. 구독자는 3개월 동안 약 6.4권을 다운로드한

다. 한 권 이상 완독한 구독자는 24%, 열람하지 않는 구독자도 34%이다. 대부분 베스트셀러이고 완독 비율은 낮다. 한 번이라도 받은 콘텐츠는 1,7%밖에 안 된다. 인공지능과 큐레이션을 활용해 숨어 있는 콘텐츠를 다운받게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다.

소규모 출판사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반면 메이저 출판사는 도서정가제도 있어서 유통사에게 콘텐츠 비용을 많이 지불하라고 한다. 유통사 입장에서 전자책은 종이책 유통과는 다른 기술 기반의 사업이다. 지금은 법이 섞여 있다 보니 시장이 크지 못한다. 전자책 사업자들은 다 적자이다. 전자책을 출판유통 개념과 접목시켜 계속 규제한다. IT 사업으로 인식을 전환해 기존의 규제를 감소시키고, 독서문화를 확산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워주었으면 한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구독서비스 방식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가장 둔감한 분야 중 하나가 출판이다. 전자책 구독서비스가 새로운 전형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종이책 중심의 출판업계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독 모델의유형으로는 무제한, 정기 배송, 대여형이 있다. 전통적인 출판시와서점의위기, 웹소설과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과 발전, 전자책 플랫폼의 난립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출판 생태계가 상호 연계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는 물리적 소유와 디지털 소유의 시대에서 디지털 접근 방식으로 콘텐츠 유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구독경제 모델이 전자출판물 혹은 디지털콘텐츠를 취급하는 플랫폼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출판업계가 실현하고자 했던 도서정가제의 사각지대를 형성했다.

먼저 전자출판물이 도서정가제의 대상인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출판사에서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판매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전자출판물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또는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결국 도서정가





제를 둘러싼 논란은 출판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콘텐츠 이용을 허락할 때 도서정가제를 적극 준용한다거나 어느 시점부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제를 계약서에 명문화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가 모두 전자출판물은 아니기에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관련 업계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이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출판과 관련된 법제 개선을 통해 협력해서 독자층을 확산시켜야 한다.

구독경제 모델은 스트리밍과 네트워크 기술의 향상, 디지털 파일의 소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욕구에 기술을 접목시켜 활성화한 결과물이다. 구독경제가 얼마나 호황을 누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는 시대를 다시 맞게 되면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구독경제의 재부상은 독 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시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출판의 개념에는 디지털화된 출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이 책 업계에서는 새로운 독자 창출 방식으로서의 구독경제의 장점을 이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책 업계에서는 도 서정가제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합의된 범주 안에서 이를 적극 반 영함으로써 출판문화의 고유성이 말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플릭스형 월정액 서비스는 도서정가제와 공존하겠











이중호, 지영균, 김기태, 강일용, 정우영, 최승훈(왼쪽부터

지만 상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독서비스와 도서정가제는 별 개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한다. 구독 모델이 독자층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들의 이익 창출에 영향을 주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출판사들은 구독 모델을 통해독자와 소통에 나선다면 상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제 4 구매의 시대가 가고 '구독의 시대'가 왔도다

강일용 아주경제 기자

구독경제가 2010년 이후 이슈인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1999년 월 5달러에 DVD를 무제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해 2007년부터 인터넷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9년은 구독 모델, 2007년은 구독 모델이면서 접속 모델이었다. 페이지를 열어보고 콘텐츠를 구입해도 접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구독과 접속의 개념이 맞물리지만 오프라인에는 구독의 개념만 남아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4가지 특징은 즉시성, 동시성, 확장성, 의존성이다.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곧바로 구매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단말기가 없으면 볼 수 없고 플랫폼에 의존한다.

현재 음악 소비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시장 자체가

구독으로 넘어갔다. 영화도 유통은 10년 전 DVD에서 멈췄고, 스트리밍과 구독형 서비스에 이미 지배당하는 상황이다. 반면, 게임과 전자책은 아직 멀었다. 게임은 판매가 주를 이루고 책도 마찬가지이다. 킨들 언리미티드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게임과 영화가 구독형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과 영화는 콘텐츠 이용 시간이 짧다. 책은 최소 4시간은 읽어야 하고 게임은 더 길다. 구독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구독형 모델에서는 출판사, 작가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일일이 설득하기 어렵다. 영화와 음악은 저작권협회가 있어 해결하기 쉽다. 게임은 구독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무료 배포 후 유료로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앱 내부(In-App) 결제 방식이다.

책도 판매와 구독 외에 다른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게임이 좋은 사례이다. 부분 유료화는 장르소설에서 보편화되었다. 1편만 보여주고 더 보고 싶으면 구매하게 한다. 책은 무료로 주고 관련 굿즈를 팔아 이익을 얻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다. 정체된 비즈니스 모델을 교체할 시기가 왔다. 도서정가제는 지켜져야 한다. 작가 입장에서 책이 가치를 인정받고 팔렸으면 한다. 유통사들의 고민도 필요하다. 구독용과 판매용 콘텐츠를 구분해, 빠르게 찍어서 유통하는 콘텐츠는 구독형으로 공급한다. 콘텐츠의 형태를 다양화해서 도서정가제와 구독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를 고민했으면 한다.

토론 1 저는 아직 한 번도 구독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출판유통의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영 시인/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

서점에서 시집 코너가 사라지고 있다. 시집 한 권을 내는 데 5년 정도 걸리지만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주일도 안 되어 사라진다. 작가에게 구독서비스는 멀리 있는 개념이자 유통 방식이다. 최근 웹소설은 드라마 등에 이용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자들의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학은 대체로 계몽과메시지 위주였다. 최근 문학을 읽는 독자들은 재미와 흥미 쪽으로달라졌다. 예전의 독자는 끈기가 있었다면 지금의 독자는 효용성과순간적인 변화와 재치에 관심을 보인다. 작가들은 아직 구독서비스를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전자책 방식은 10여 년 전 도입되었지만전자책을 통해 인세나 저작권료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저작권과 2차 저작권 문제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구독서비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저작권이 맺어져야한다. 작가와 출판사는 이런 방식을 논의한 적도 없다. 음악이나영화는 이용자와 저작권자, 공급자와 제공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책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구독서비스 방식과 전자책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책 형태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달라져야 한다. 책 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한다.

답답한 매체이고 기술적으로 뒤지지만 종이책은 존재해야 한다. 아날로그는 개인과 개인이 결합된 사회에 상상력을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해리 포터 캐릭터가 정해져 있다. 영화가 아닌 책으로 접하면 모든 독자가 마음속에 해리 포터를 가지게 된다.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공존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토론 2 구독경제? 약탈하는 플랫폼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문화산업정책센터 정책위원

출판산업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산업이다. 많은 문화산업들이 고민하고 거친 지점 어딘가에 있다. 대부분의 산업들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왜 구독과 구독경제라고 표현했는지, 지금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표현인지 묻고 싶다. 대부분 온라인망에서 콘텐츠

가 딜리버리되는 과정을 플랫폼화, 플랫폼 경제라고 표현한다. 출판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를 기술 우월주의자, 통신사업자가 설명하는 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음원 서비스에서스트리밍 음원은 곡당 3.6원이고 저작권자에게 0.6원이 돌아온다.소비자가 얼마를 내는지와는 상관없다. 저작권자가 60만 원을 벌기위해서는 100만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한다. 창작자는 더 많은 글을쓰고 음악을 만들지만 아직 가난하다.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팔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판매 사업자가 아니다. 트래픽을 플랫폼에 가둬놓고 지대를 받는 사업자이다. 콘텐츠의 가격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 많은 콘텐츠를 서비스하지만 수입은 광고에서 나온다. 트래픽에 의해 광고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지금의 환경에서 개별 콘텐츠의 가격을 도서정가제 형태로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지가 문제이다. 콘텐츠 딜리버리 환경이 우물이라면 제작자, 창작자들은 우물가에 있지만 목이 마르다. 물이 모자란 것은 누군가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물가에 저작자들이 모여 싸우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다른 콘텐츠 장르에서 이미 증명된 바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본질적인 방향에서 풀어가야 할 때이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정원옥 사회자는 "공통적으로 전자출판산업과 구독경제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구독경제가 누구 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면, 플랫폼 경제는 누구의 이 익을 빼앗아 이익을 증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용어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출판사의 공통 과제는 다른 콘텐츠산업에 독자를 뺏기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를 좁히고 양보할 필 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김기태 교수는 "출판시들은 출판권이 저작권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법대로 하면 출판사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출판권자는 2차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출판계약서에 위임한다.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독은 과거





정원의

정기간행물에 쓴 말이다. 구독자가 많다고 원고료를 많이 준 것은 아니다. 단행본은 독자들이 알아서 사는 방식이다. 판매부수가 늘어나면 저작권 사용료가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빗대어 구독경제라고 썼다. 책에서 파생되었지만 오늘날의 온라인 상황에 적합한 용어"라고 답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페이퍼 김보관 기자는 출판이나 유통업계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있는지와 오디오북 관련 사업 계획을 물었다. 교보문고 지영균 차장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한 오디오북 사업을 연구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도서 추천 서비스 기술도 이관 받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오디오북은 아직 시장이 없어서 조금씩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점인이라는 참가자는 "서점은 최근에 나온 책만 판매하지 않는다. 좋은 책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팔린다. 좋은 책이 정액제 서비스에 편입되면 기존 서점에서 판매가 될까. 판매되지 않으면 책의 생명력은 사라진다. 출판사에도 피해가 간다"면서 이에 대한 유통업계의 생각을 물었다. 지영균 차장은 "우리 역할은 독자가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 책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에게 계속노출해주고 결과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다. 싼 가격에

제공하지만 대여 서비스라 한 달만 고객에게 권한을 준다. 다운로 드만 하고 다 못 읽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출이 가장 큰 목표라고 설 명했다.

또 한 명의 청중은 최승훈 정책위원에게 기술 발전과 바람직한 플 랫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기술 발전은 비판적으로 봐야 한 다. 기술은 끌어가는 자본의 성격에 의해 발전해간다. 음악 관련 기 술은 발전해왔지만 음악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스트리밍 기 술만 발전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바람직한 플랫폼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플랫폼 사업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콘텐츠를 싸게 제공하고 광고 등을 통해 부 대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자나 창작자에게 그들의 몫 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큰 영업이익 을 남긴다 플랫폼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비판적으로 부석해볼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영균 차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약탈 자가 아니다. 상생하면서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전자책을 10년 했지만 매년 적자였다. 그동안 출판사와 작가가 매출을 가져갔다. 시장을 키우고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플랫폼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네이버 웹툰이나 소설은 작가들도 많은 돈을 번다. 단행본은 워낙 규제가 강해 성장 하지 못한다. 규모와 시장을 키워 상생하는 구조로 가고 싶다"는 바 람을 덧붙였다. 강일용 기자는 "뉴스는 가장 먼저 구독서비스를 도 입했지만 플랫폼 때문에 망했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플랫폼을 거부 할 수는 없다. 플랫폼과 콘텐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사업 자는 플랫폼 사업자를 못 이긴다"며 "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편 하다 콘텐츠가 있어도 독자에게 전달할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길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책이나 게임은 아직 독점 사업자가 없다. 플랫폼 사업자끼리 경쟁시키면 콘텐츠 사업자와 구 독자가 이익을 얻는 상생 방안이 나온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우영 시인은 "작가들도 알아야 한다. 독자도 의견을 내야 하고 작가도 마땅히 발제자의 한 명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건 의했다. 정원옥 사회자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만 나 전자출판 생태계와 유통 플랫폼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리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백종헌

※ 외부 행사의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이 된 스니커즈

스니커 아티스트 루디

루디는 스니커즈를 해체해 새로운 조형물로 재구성하는 스니커 아티스트다. 고가의 스니커즈에 칼을 대어 모든 부분을 한 땀 한 땀 뜯어내고 상상하지 못했던 조형물로 변신시키는 그의 작업에 미술계와 패션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미 삼아 SNS에 올린 작품으로 '스니커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루디가 직접 자신의 작업 세계를 소개한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해체 작업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예체능에 뛰어난 집안 핏줄 덕인지 나름 잘하는 것이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프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했고 낙서도 좋아해 만화를 곧잘 따라 그렸다. 초등학교 때는 방학숙제로 〈드래곤볼〉 38편 표지를 커다란 2절지에 그려서 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크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다. 중학교 축제 때는 내가 그리고 만든 작품들이 내내 전시됐다. 중ㆍ고등학교 땐 춤과 랩에 빠졌고 성악을 전공하신 아버지의 영향인지 노래와 랩을 곧잘 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게 두셨던 부모님 덕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걱정스

런 마음을 뒤로한 채 늘 응원과 격려를 먼저 해주셨다. 30살이 되던 해, 1년 전 뉴욕에 간 친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형, 여긴 형이 무조건 와야 하는 곳이야"라는 동생의 말에 뉴욕행을 결심했다.

3년간의 뉴욕 생활은 매일매일이 환상적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사진과 영상을 배워 사진가와 비디오그래퍼라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호기심에 시작한 운동화해체 조형물 작업이 나를 지금의 '스니커 아티스트 루디인다하우스 (Rudyindahouse)'로 만들었다.

지난해 1월, 호기심에 운동화를 뜯어 해체하기 시작했다. 해체하고 나니 호기심은 한방에 해결되었고 나처럼 운동화의 내부 혹은 구성 이 궁금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해부 표본처럼 만



- **1** 루디의 첫 작품.
- 2 스니커 아티스트 루디.
- **3** 개인전 〈Rudy gets rude〉 1층 전경

들어보기로 했다.

세 번째 작업을 고민하던 중 나이키에서 발매한 한정판 운동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운이 좋게도 그 운동화를 손에 넣었다. 작업에 대한 열정이 넘쳐 한정판 운동화를 직접 신는 것보다 해체 작업이 우선이었다. 완성된 작업 사진을 SNS에 올리자 엄청난 반응이 몰려왔다. 제품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본인의 계정에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고맙게도 미국의 한 유명 패션 잡지에서 내 작업을 소개했다. "This sneaker artist destroys coveted releases."(이 스니커 아티스트는 대단한 운동화들을 파괴한다.) "Rudy gets rude."(루디는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 이후 나는 스니커 아티스트로 불리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스니커 커스텀 아티스트 비펠라의 권유로 국내 유일무이한 스니커쇼인 스니커하우스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그때 내 작품은 겨우 4점 있었다

작년 9월엔 삼청동에 위치한 신단비이석예술 갤러리에서 역사적인 첫 개인전을 열었다. 11월엔 나이키 코리아의 행사에 아티스트로 참 여했고 유명 잡지, 신문사와 인터뷰도 몇 차례 진행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며 정신없이 개인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을 고민하던 어느 날, SINS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처는 놀랍게도 밀라노였다. 2019년 1월 밀라노에서 열리는 패션 행사에 나를 초청해내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첫 해외 전시가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열렸고 내친김에 파리에서도 작은 팝업 전시를 진행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큰 영감을 주었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

나는 옷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한 첫해 여름, 티셔츠에 내 작품을 프린트해 판매했다. 그때 마침 일본 기반의 한 글로벌 편집매장 관계자가 도쿄에 있는 매장에서 전시를 하며 티셔츠를 판매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컬렉션 전시는 올해 2월 진행됐는데,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품절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반응이 좋아 컬렉션 전시는 4월에 방콕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이다. 7월엔 국내에서, 10월엔 말레이시아, 11월엔 체코에서 전시가열린다. 사실 이렇게까지 내 작업이 주목받을지 몰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크다. 요즘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 설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말도 안 돼"라는 혼잣말이 튀어나온다.

앞으로 더 많은 전시와 더 멋진 작업을 통해 나를 알리고 싶다. 나아가 목표가 있다면 나이키 글로벌과의 협업 혹은 프로젝트, 그리고 나이키 협찬이다. 나이키 협찬은 단순히 제품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매일 신발을 뜯다 보면 언젠가 나이키 계약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를 뜯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글·사진 제공 루디_스니커 아티스트





무대를 향해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생각할 것들

공연계 '도촬' 논란

관객이라면 누구나 공연 관람의 추억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공연장 로비에 포토 존을 마련하거나 굿즈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허용된 방법을 넘어 공연장에서 직접 도둑 촬영을 하는 관객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장면 1, 지난 6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리사이틀. 본 공연을 마친 선우예권이 앙코르 곡을 연주하기 위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순간 객석에서 스마트폰 신호음 소리가 계속 들리자 선우예권은 집중력을 다잡으려는 듯 호흡을 재차 가다듬었다.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길어지자 객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장면 2, 지난 5월 14일, 슈베르트 3대 가곡집 전곡 연주를 위해 내한한 영국의 스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무대. 본 공연을 마치고 두 번째 앙코르 곡을 들려준 보스트리지는 무대 밖으로 나가기 전 앞쪽 좌석의한 관객에게 다가가 손으로 'X' 자를 그린 뒤 퇴장했다. 이 관객은 바로 직전 하우스 어셔(공연장 안내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들었는데, 아티스트가 직접 다시 '도촬 금지'를 당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공연을 보고 나오는 관객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스마트폰을 맡겨놓고 공연을 보라고 해도할 말이 없겠다"라는 대화가 오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공연 에티켓

공연예술이 변화하는 것처럼 공연 관람 에티켓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취식이 가능하고 애완견도 데리고 들어갔다는, '시장통'이나 다름없었던 수백 년 전의 오페라 극장은 이제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음악회장에서 악장간 박수를 자제하도록 한 것도 사실 100여 년 전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 시대에 교향곡의 1약장이 끝나고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관객이 있다면 대다수가 인상을 찌푸릴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어느 누구도 악장마다 박수가 나오던, 시장통 같던 옛 음악회장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에티켓이 생기기도 한다. 공연장에서의 '도촬'이나 녹음을 금지하는 것도 누구나 작은 촬영기기, 녹음기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테크놀로지가 일상화되며 나타난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를 불법으로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외국에서는 극장 직원들이 첨단 장비로 이를 잡아내는 사례까지 생긴 것처럼, 우리 공연장에서는 어셔들이 '도촬'이나 불법 녹음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국공립극장인 서울 예술의전당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진 촬영 및 녹음, 녹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원칙적인 공연 관람 예절이라고 공지한다. 나아가 "공연 장면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까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셀프카메라 촬영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관 시 공연기획사와의 '사전 협의'로 커튼콜 촬영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론 공연의 모든 과정 일체를 관객의 눈과 귀를 비롯한 '오감'으로만 감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 1 최근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스쿨 오브 락〉、〈스쿨 오브 락〉은 록 콘서트를 방불게 하는 마지막 커튼콜 때는 촬영을 허락한다. 커튼콜 사진과 영상은 공연 팬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흥행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 2 뮤지컬 〈록키호러쇼〉. 관객참여형 뮤지컬로 유명하지만, 공연은 무대나 커튼콜을 포함해 일체 촬영을 금지한다. 작품과 관련된 모든 영상과 사진은 외부로 노출하기 전 해외 원작사의 검수가 필수라고 기획사 측은 설명했다.

마케팅 효과와 저작권 사이

물론 본 공연이 끝나고 무대인사 때는 촬영을 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커튼콜 자체를 하나의 특별 공연처럼 연출하고 촬영을 허락하는 작품들도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대중화되며 영상·사진을 공유하면 공연기획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초 선보인 뮤지컬〈플래시댄스〉나 최근 샤롯데 씨어터에서 개막한 뮤지컬〈스쿨 오브 락〉등이 이러한 사례다. 이들 작품에서는 스마트폰을 켜고 일제히 화려한 커튼 콜 무대를 영상에 담는 객석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보수적인 유럽 클래식계도 커튼콜 촬영에는 관대한 쪽으로 변화했다. 스마트폰이 아닌 디지털카메라나 태블릿 PC로 무대를 촬영하는 관객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디지털카메라를 대신한 지 오래인 우리에게는 이 같은 모습이 오히 려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 뮤지컬 프로덕션 등은 대체로 촬영에 엄격하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공연을 진행한 뮤지컬 〈라이온 킹〉 인 터내셔널 투어는 언론들도 디즈니가 제공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었다. 국내 매체에 작품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미디 어 투어 때도 일체의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차례 주지하기도 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공연 촬영물이 삭제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자신의 연주 장면을 공연장로비로 송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깐깐한'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의 내한 리사이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공연을 주최한 기획사는 영상을 올린 계정 측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유튜브 본사에 공식 요청해 긴급히 '도촬 영상'을 지웠다고 한다.

공연계에서는 저작권 때문만이 아니라 관객이 온전히 작품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촬영을 되도록 자제해달라고도 한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공연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촬영보다는 박수를 보낼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대를 향해 스마트폰을 들기 전, 공연 관람의 선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아티스트가 노력과 열정으로올린 무대에 어떻게 응원을 보낼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안석_서울신문 기자 **사진 제공** 클립서비스

<u>"이제 공연도</u> 호자 봐유"

2030 여성 관객에 힘입어 '혼공족' 급증

'1인 가구', '혼밥', '혼술' 등 '일코노미'(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경제 현상)가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됐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혼밥족'을 비롯해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이제 주변인이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며 나 자신이기도 하다. '일코노미' 트렌드 속에 혼자 공연을 보는이른바 '혼공족'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관객 절반은 '혼공족'

최근 국내 최대 공연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공연 관람자 중 무려 46%가 혼자 공연을 보는 '혼 공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공족'은 2005년에는 11%에 그쳤지만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5%, 2017년에는 49%까지 늘어났고, 2018년에는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반면 2인 관객의 경우 2005년 69%에서 2017년에는 38%까지 하락해 1인 관객과 대조를 이뤘다. 이 밖에 3인, 4인 이상 동반 예약 건수는 2005~2018년까지 변동 폭이 작았다. 3인 예약 건수는 2005년 9%에서 2015년 6%까지 하락했다. 4인 관객도 2005년 10%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6%까지 내려갔다.

공연 장르별로 살펴보면 '혼공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콘서트로 2016년에는 55%, 2017년에는 65%, 2018년에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당 1매로 티켓 구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증가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또 클래식 · 오페라와 연극이 다른 장르에 비해 1인 관객의 비중이 높았다. 2018년에는 클래식 · 오페라의 1인 예매 관객 비중이 43%로 2인 관객 예매 비중(42%)보다 근소하게 높







았다. 연극의 경우도 1인 관객 예매 비중이 41%로 뮤지컬 39%, 무용 · 전통예술 38%보다 높았다. 클래식과 연극은 뮤지컬에 비해 티켓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마니아층이 확고해 혼자 공연을 즐기는 관객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장르와 상관없이 1인 예매자와 2인 예매자의 비중이 비등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는 '혼공'이 이제 보편적인 관람 행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혼공족' 비중은 흥행에 비례

성별로 '혼공족'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성 중에서도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가 그 뒤를 이었다. 2015~2018년 기준으로 '혼공족'의 남녀 비중은 남자는 25%, 여자는 75%에 달했다. 여성 '혼공족'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31.5%, 30대 여성이 18.6%, 10대 여성이 11.5%를 각각 차지했다. 10대의 약진이 두드러 진 것도 특징이다. 10대는 2015년에는 10.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17.1%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13.4%를 차지 했다. 이는 아이돌 콘서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10대 팬들의 공연 관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시기에 글 로벌 팬덤을 구축한 방탄소년단이 고척돔 등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고,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결과에서 '혼공족' 비중은 46%였지만, 뮤지컬과 연극의 개별 작품 중에는 '혼공족' 비중이 무려 70%나 되는 공 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혼공족' 비중이 가장 높았던 작품은 대극장(1,000석 이상) 뮤지컬 중에서는 〈웃는 남자〉였다. 이 작품은 1인 예매자 비중이 45%에 달했다. 〈지킬앤하이드〉(44%), 〈프랑켄슈타인〉(43%), 〈엘리자벳〉(34%), 〈닥터 지바고〉(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극장(1,000석 미만) 뮤지컬 중에서는 〈배니싱〉이 무려 86%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랭보〉(83%), 〈스모크〉(82%), 〈인터뷰〉(75%), 〈마마 돈크라이〉(74%)가 2~5위를 차지했다. 연극 중 에서는 〈벙커 트릴로지〉가 88%에 달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알앤제이〉(79%), 3위는 〈카포네 트릴로지〉(74%), 4위는 〈ART〉(73%), 5위는 〈아마데우스〉(44%)가 각각 차지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야별로 1~5위까지 오른 작품들 을 보면 대극장 뮤지컬은 30~40%. 중·소극장 뮤지컬과 연극의 관객은 60~80%가 '혼공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품들은 인터파크 연간 결산 상위권 랭킹과 회전문 관객이 많았던 공연 랭킹과도 대부분 일치했다. 흥행이 잘된 공연 일수록, 또 회전문 관객이 많은 공연일수록 '혼공족'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글 연승_서울경제 기자

종이 소설의대체재 될까?

웹소설 열풍

화제의 드라마였던 KBS 〈구르미 그린 달빛〉, MBC 〈해를 품은 달〉,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공통점은 무엇일 까? 이 작품들의 원작은 모두 웹소설이었다. 2015년 개 봉한 영화 〈검은 사제들〉역시 웹소설이 원작이다. 웹소 설이 멀티 콘텐츠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제작되며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웹소설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2011년 시작된 네이버 웹소설은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2019년 3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0.4% 성장했으며, 독자 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국내 3대 웹소설 플랫폼으로 꼽히는 '문피아'를 보면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3년 출범 당시 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15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매출액 42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피아 이용자 역시 2015년 30만 명에서 현재는 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웹소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

웹소설에서 주로 유통되는 장르는 무협이나 판타지, 로맨스물이다. 가볍고 쉽게 소비되는 스낵컬처 특성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것. 한 소설이 여러 회로 나뉘어 있는데 한 회 분량은 약 5분 내로 읽을 수 있다. 평소 웹소설을 즐겨 본다는 신양섭 씨는 "이동하는 중간 스마트폰으로 웹소설을 본다"며 "호흡이 길지 않아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날것' 그대로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기존 출판물은 출판사의 여과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출판물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웹소설은 바로바로 독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웹소설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자뿐 아니라 작가들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현재 문피아에 등록된 작가는 약 4만 7,000명이다. 2013년 3,8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네이버 콘텐츠 플랫폼 '시리즈'의 박제연 리더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이 인기를 끌고 구독자가 늘면서 필력 있는 신진 작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한 작품이 늘면서 독자층 또한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가들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다. 태블릿 PC 등의 기기가 필요한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웹소설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낙준 씨는 "평소 나만의 작품을 써보고 싶었는데, 기존 출판 시장은 문턱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와 달리 웹소설은 매일 자유롭게 글을 연재하는 방식이라 도전할 수







- 1 2019 지상최대공모전 화면 갈무리. (출처 https://comic.naver.com/contest/greatest/home.nhn)
- 2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한 장면. (출처 tvN)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연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웹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유지 작가는 "웹소설은 일반 소설보다 제약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또한 장르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독자가 읽고 싶은 장르를 골라 읽을 수 있고, 작가도 쓰고 싶은 장르 안에서 마음껏 스토리를 펼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작가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기존 출판 시장보다 많다.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출판사의 경우 보통 작가에게 수익의 10% 정도가 돌아가지만, 웹소설 시장에선 작가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간다"며 "문피아에서 매년 5억 원 이상 기록하는 작가는 20~30명에 달하고, 10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작가도 1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문피아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재하고 있는 싱숑 작가, 지난해 〈재벌집 막내아들〉을 연재한 산경 작가 등이 모두 한 해 10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웹소설의 미래는?

웹소설업계에선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활자를 소비하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과거 인력거가 택시로 바뀐 것처럼 읽을거리가 소비되는 트 렌드가 달라지면서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민음사 관계자는 "웹소설은 특수 장르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호흡이나 문법 자체가 기존 출판물과 완전히 다르다. 웹소설 시장이 기존 출판물을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웹소설업계는 성장세를 몰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거액의 상금과 정식 연재 등을 내걸고 지난 4월부터 2019 지상최대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피아 역시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을 개최하고, 해외 시장에 작품을 수출하기 위해 번역 ·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글 정어람 중앙일보기자

당신의 작은 예술을 지원합니다

'소액多컴'

지난 2013년부터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소액多컴'은 예술가들이 기존 지원제도에서 마주했던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원 문턱을 낮추는 작은예술지원사업이다. 지난 5월, 올해의 '소액多컴' 1차 공모에서 다섯 개의 작은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 1 '소액多컴' 자유 발표.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5분간 본인의 작업을 소개한다.
- 2 '소액多컴' 네트워킹 파티. 작가들이 자유 발표 이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음 중, 당신이 '소액多컴'에 지원을 독려하고 싶은 창작자는?

- (1) 노트북에 디테일한 구상은 가득한데 작업을 시각화할 제작비가 없어서 포트폴리오도. 경력 사항도 늘 허전한 최구상 씨.
- (2) 소규모의 흥미진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지만 극장 대관료를 마련하지 못해 관객 앞에 설 자리가 없는 박배우 씨.
- (3) 예술 작업을 기획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요령이 부족하여 연초 굵직한 예술지원사업에서 전부 낙방, 한 해의 희망을 잃은 김희망 씨. (4) 예술 작업을 지속할 지원금은 간절히 필요하지만 복잡한 정산 절차와 e나라도움 페이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이정산 씨.

(5) 예술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고 작품을 발표해본 적은 없지만 창의 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윤예술 씨.

장르 제한 없음, 자격 제한 없음, 정산 없음!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업을 새로 시작하고, 또 지속하기 위해 매년 지원서를 쓴다. 예술 작업만으로 예술가의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예술 작업에 필요한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원제도는 매해 현장 예술가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씩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기획안 작성, 그리고 정 산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공동운영단 기획으로 2013년부터 지속해온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多컴'은 기존 지원제도에서 현장 예술가들이 느꼈던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점점 대규모화되는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할 규모의 예산을 쪼개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소소하고 신선한 시도들을 독려하는 시드 머니(Seed Money)로 사용한다. 말 그대로 '소액'이지만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시상금 형태의 지원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창작자, 다양한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조건 또한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나이, 경력 등의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원 분야 등 특정 장르나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도 환영한다. '소액多컴'은 신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누구든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평적 심사 과정과 네트워킹

'소액多컴'의 심사 과정은 크게 서류 심사, 그리고 자유 발표 및 동료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장르 제한 및 지정 양식이 없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자유 발표에서도 PPT, 악기 연주, 장면 시연 등 발표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다. 동료 예술가들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된다. 심사를 주관하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뿐만 아니라 당일 참석한 모든 후보자가 투표권을 갖기 때문이다. 본인이 심사 대상인 동시에 심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5분 발표와 5분 질의응답 이후 맥주, 핑거 푸드와 함께 몹시 자유로운 분위기의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되므로 프로젝트와 작가 본인에대해 더욱 다면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네트워킹 파티는 어떤 예술가들이 왔는가에 따라 매해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소액多컴'에 장르 구분이 없기 때문에 타 분야의 동료 예술가를 만나고 새로운 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되다.

올해 만나게 될 '소액多컴' 프로젝트는?

지난 5월, '소액多컴' 1차 공모에서 예술기들의 동료 투표를 통해 다섯 개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래 기간과 장소를 참고하면 소소하고 신선한 예술 프로젝트들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박채희, 한만오 작가의 〈Gorf eht EPEP〉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30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인쇄 오류에 대한 전략과 태도를 모색했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소는 whatreallymatters(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황규민 작가의 〈Muh Emdap Inam Mo〉는 회화 작업으로 꿈이나 스스로 설정한 목적지, 목표 같은 미래의 것들이 가지는 허구성을 드러내고 개인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장소는 서교예술실 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그린앤블루 팀의 〈NOWHEREVER〉는 기존의 전시 문법을 타파하고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NOWHERE), 어디에나 존재하는(WHEREVER) 전시 형태의 실험을 진행한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장소는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이미선, 허성진 작가의 〈ㅇㅁㅇㅇㅁㅈ, 의미의 이미지〉는 회화와 텍스트 커튼, 조각보를 관객과 함께 활용하여 '의미의 이미지'를 그 려낸다.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장소는 서교예술실험센 터 1층 전시장 및 아트인포.

임유정 작가의 〈petting frame〉은 영상매체와 이미지, 오브제 설치를 통하여 '신체 없는 허구의 이미지에의 몰두'에 대해 다룬다.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장소는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이후 '소액多컴' 2차 공모에서는 추가로 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이다. 혹시 당신도 노트북 속에 숨겨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원해보면 어떨까? 서두 문제의 정답은, 모두들 짐작했겠지만, '소액多컴'은 모든 창작자를 환영한다.

글 김미현_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7기 **사진** 서울문화재단

청춘을 청춘(靑春)답게

신촌, 파랑고래

신촌은 매년 젊은 피를 수혈받는 대학과 스터디 공간, 취업 알선소 같은 학원을 품고 청춘을 유혹한다. 때론 모습을 바꿔 버스킹, 페스티벌 같은 재미난 볼거리를 주고 그 연장선으로 맥주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도 만들어준다. 노량진의 치열함과 이태원의 '힙함'에 군더더기가 빠진 느낌이랄까. 아무튼 청년(청춘) 유동인구가 많으니 그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새싹이 돋는 봄철이란 뜻처럼. 청춘(靑春)이 청춘다울 수 있게.



청년문화 중심지를 목표로

지난 5월 29일 서대문구가 '신촌, 파랑고래'(이하 파랑고래)를 개관했다. 신촌동 신촌역 앞 창천문화공원에 자리한 앵커 시설로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게 목표다. 신촌에서도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신촌역 앞이고 기획자들이 똘똘 뭉쳐 방법을 모색하니 청년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연세로5길에 위치한 공간은 서울시가 2015년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5곳(성북구 장위동, 성동구 성수1, 2가 일원, 강동구 암사1동, 동작구 상도4동, 서대문구 신촌동)을 선정하면서 건립 계획이 수립됐다. 파랑고래의 초기 명칭은 청년문화전진기지(가칭)로 이름부터 방향성이 뚜렷했다. 지난해 12월 준공됐고, 올해 '신촌, 파랑고래'로 명칭을 최종변경 ·확정했다. 고래의 형상을 닮은 건물 외관과 청년의 맑고 푸른이미지를 한데 묶었다.

공간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바다 속 연습실'(연습실), 지상 1층은 '고래마당'(공연장), 2층은 '웰컴 라운 지', 2층과 3층 사이 미들층은 '파랑 고래실'(휴게 공간), 3층은 '꿈 이 룸 홀'(다목적 홀)이다. '허늘 오아시스'는 옥상이다.

서대문구에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모토로 한 공간이 많다. '플레이 버스', '창작놀이센터', '문화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최근 파랑고래가 추가되어 네 개의 공간은 청년문화 · 예술 벨트로 이어진다. 각 공간 은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은 앞서 말한 청년문화 활성화이 며 여집합은 공간의 세부적인 특징이다.

문화발전소는 완성된 것을 펼치기에 좋고 창작놀이센터는 제작공 간의 성격이 강하다, 플레이버스는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 서 파랑고래와 비슷하나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다르다.









파랑고래는 기획부터 쇼케이스까지 할 수 있는 논스톱 공간이다. 지역주민과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단순 참여형 공간보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장이 되고자 한다. 키워드를 꼽자면 문화예술, 청년문화, 지역 커뮤 니티 조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말 그대로 유동인구다 보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처럼 뭉치기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하지만 그간 진행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걱정이 무 색해 보인다.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프리개관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역 참여 프로그램이었던 〈신촌.만.남〉은 신촌의 문화, 패션, 음악분야의 세대 공감 토크, 신촌 파랑고래 운영포럼을 통해 지역주민



- 신촌, 파랑고래 전경.
- 2 프리개관식 거리극 중 마임이스트 류성국 씨가 신촌, 파랑고래 앞 야외 공원무대에서 (빈손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공연하고 있다.
- 3 〈파랑고래! 나랑놀래?〉 공원프로그램인 '대형 젠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 4 신촌, 파랑고래 2층 웰컴 라운지.

과 청년들이 그리는 신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밀레니얼 공작소〉는 각 분야에서 청년·대학생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총 35명의 청년·대학생이 지난 3월 29일 발대식을 가졌고 8회의 워크숍과 기획회의를 거쳐 5월 31일 파랑고래와 창천문화공원 내에서 청년·대학생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공연, 강연, 전시 등 복합문화 행사를 치렀다. 하반기에도 이런 '참여형 문화기획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홍보에도 적극으로 나선다. '대학생 기자단'은 파랑고래와 신촌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취재 4명, 영상 3명, 총 7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3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파랑고래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를 취재하고 기획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취재물은 파랑고래 공식 SNS 채널1에 게시된다.

대관도 가능하다.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공간이 라 규모가 있는 기존 단체에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와 발전 단계에 있는 청년(청년 단체)에겐 기회 제공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신촌, 파랑고래

1 http://blog.naver.com/sdmcity2019(블로그) www.facebook.com/parangkore(페이스북) www.youtube.com/channel/UCAqITZ5I9VtRNrDfcnjSXfw(유튜브)





우리 안의 폭력과 마주하다

다원극 〈포스트 아파트〉와 연극 〈묵적지수〉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을 톺아보는 두 편의 작품이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 평소 고요하던 내면의 정경은 돋보기를 들이대는 순 간 광포한 민낯을 드러낸다. 다원극 〈포스트 아파트〉는 아파트공화국에서 욕망의 대상이 된 아파트를 들여다본다. 아파트를 살 아 있는 생물로 보고, 현재의 우려와 미래의 대안을 담는다.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와 초혜왕이 모의전을 했다는 일화를 소재로 삼은 연극 〈묵적지수〉는 위계와 관습을 파헤친다.

현재의 화두와 미래의 내면

〈포스트 아파트〉 6. 18~7. 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윤수일은 〈아파트〉(1982)에서 노래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 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 의 아파트"라고. 최근 한국식 시티팝으로 재조명되는 이 곡에서 아 파트는 낭만이었다. 이제 아파트에서는 낭만은커녕 추억도 찾기 힘 들다. 저 멀리 물신화의 최첨단에서 질주하고 있다. 두산아트센터 '두산인문극장 2019 : 아파트'의 마지막 공연〈포스트 아파트〉는 이 뜨거운 화두를 좀 더 이성적으로 들여다본다. 아파트에 대한 의견과 경험, 이상과 가능성을 녹여낸다. 여러 예술 장르에 몸담은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구성을 맡아, 다양한 시선을 포섭하고 다각도의 분석물을 내놓는다. 안무가 정영두, 건축가 정이삭, 작곡가 카입(Kayip), 영화감독 백종관이 참여했다. 이 네 명은 지난해부터 1년간 아파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와 현장답사





- 1 다원극 〈포스트 아파트〉.
- 2 연극 〈묵적지수〉 연습 장면.

를 진행했다. 〈포스트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발견한 질문과 고민을 무용, 음악, 영상, 공간건축 형태로 구현한 다원 작품이다. 집 · 주택 · 가옥 등 물리적인 것에 방점이 찍힌 하우스(House)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정신적인 위안을 누리는 추상적인 의미에 비중을 실은 홈(Home)으로 전환 가능한지에서부터, 집의 다양한 풍경들에 대해질문하고 고민하며 아파트, 나아가 집의 가치에 대해살핀다.

아파트는 우리의 내면을 먹고 살아가고 꿈틀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화두를 압축한 집약체'인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터전이 되는 아파트를 고찰하는 일은 삶의 기반을 감각 해나가는 일이다. 이것을 이 공연이 보여준다. '포스트 아파트', 나아가 '포스트 라이프'는 무엇일지 고민거리를 안긴다.

전쟁의 화두와 위력의 내면

〈묵적지수〉 6. 26~7. 7, 남산예술센터

초나라 혜왕 50년(기원전 439년),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적은 초나라의 송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 초혜왕과 모의전을 벌인다. 이 시범경기 같은 전쟁에는 규칙이 있다. 실전과 같지만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민준 작가의 제8회 벽산희곡 상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묵적지수〉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묵적의 모의전 제안을 받아들인 초혜왕은 초나라 사람들을 초인과 송인으로 나눠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 역 할극은 오히려 저마다의 본분과 위치를 잃게 만든다. 자신의 자리 에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이는 통제가 가 능할 것 같던 '전쟁 같은 삶'을 예측 불가한 소용돌이로 몰아간다. 여 기서 폭력이 똬리를 튼 인물들의 민낯이 까발려진다. 권력을 손아 귀에 넣고 싶어 하는 위정자들은 살육을 불사한다. 백성들은 소모 품처럼 취급된다. 그 와중에 묵적은 겸애, 즉 '사람을 두루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 이 과정에서 위력의 정체는 의심을 사고, 승자독식 체 제는 명분을 잃는다. 2019년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른가. 작은 공동체에서도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아귀다툼이 빚어지는 상 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권력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은 수직적인 맥락에 수평적인 서사와 리듬을 부여 하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의 '2019년 시즌 프로그램' 세 번째 작품으로 달과아이 극단과 공동 제작한 〈묵적지수〉는 남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여성 연출가 이래은이 연출을 맡아 기분 좋은 괴리감을 안긴다. 펄떡이는 소녀들의 생존기를 그린 연극 〈고등어〉로 주목받은 이 연출가는 전쟁 서사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을 깨고,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정하는 젠더 프리 캐스팅으로 관습조차 산산조각 낸다. 보통의 공연과 다르게 360°의 각도에서 다양한 관객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원형 무대를 사용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배우들은 원형 무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은 객석을 넘나들며 새로운 공간의 감각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극 자체의 형식과 캐스팅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까지 일방적소통이 아닌 다워적 교감을 꾀한다.

이처럼 〈포스트 아파트〉와 〈묵적지수〉는 현재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내면뿐만 아니라 공간과 형식의 속살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 이재훈_뉴시스 기자 **사진 제공** 두산아트센터, 서울문화재단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전시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와 〈에릭 요한슨 사진展: Impossible is Possible〉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예술은'이라고 쳐본다. 추천 검색어가 줄줄이 따라온다. 대개는 책의 제목들이다. 대체 예술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은 이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수하다는 방증일 테다. 그중 눈에 밟히는 검색어가 하나 있다.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 예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저마다의 대답을 제시하는 두 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수행자 박서보 작가의 회고전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웨덴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이 한창이다.

한 세기를 지나온 작가 박서보는 한국전쟁부터 인류의 달 착륙 사건, 군사정부 등 20세기 굵직한 사건들을 보고 겪어온 중인이다. 스스로를 아날로그 인간이라 칭하는 박서보 작가가 바라보는 21세기는 '스트레스 병동'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캔버스에 이미지를 토해내기보다는 캔버스가 시대의 번민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쾌하다 그림을 보면 평안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스웨덴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전시도 화제다. SNS에 작업 중인 작품을 올려 사람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 물을 본인의 공식 웹페이지로 공개하는 에릭 요한슨은 21세기와 썩 잘 어울리는 작가다. 반면 작품은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그만큼 보 는 이의 순수하고 어린 마음을 소화해낸다.

수신을 위한 수행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5. 18~9.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올해 89세, 한 세기를 통과했다. 작가 박서보는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기에 시대와 무관한 예술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는 시대의 아카이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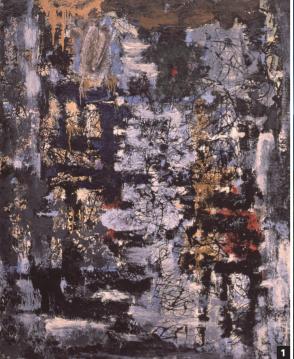
한국전쟁을 전면으로 겪어낸 그는 전쟁의 상흔을 그려냈다.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미술가의 즉흥적인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전후 유럽의 추상미술) 작품 〈회화 No.1〉의 탄생이다.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사건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회화는 기본적으로 붓의 탄력에 의해 저항을 가져온다. 하지만 공중에 분사되는 스프레이라면 무중력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유전질' 시리즈를 선보였다. 코를 솜으로 틀어막고 마스크를 쓴 채 방독면까지 썼지만 콧속은 물감 입자로 가득했다. 그렇게 3년여의 작업으로 폐질화이 발병하자 작업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에나멜을 숫돌로 갈아내고, 그 위에 다시 색을 뿌려내길 반복했다. 또 어느 날은 어린 아들의 서툰 글쓰기에서 착안해 캔버스에 유백색 물감을 칠하고 연필로 수없이 반복해 선을 그었다. 한지의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지가 채 마르기 전에 문지르고 긁고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24시간 동안 무수히 반복하기도 했다. 손가락으로 긁어내다 막대기나 자를 이용해 일정 간격을 촘촘하게 밀어내며 고랑처럼 면들을 파길 반복했다. 이를테면 수신을 위한수행이었다.

한 시대를 치열하게 응시하고 치밀하게 기록해나간 작가는 보기 드물 정도의 대규모 회고전을 선보인다. 현대인의 번민과 고통을 치유하는 예술을 위해 수행처럼 지속해온 작품 230여 점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 미공개 작품 일부를 비롯해 신작 2점도 최초 공개된다.







1 박서보 〈회화(繪畵) No.1〉 캔버스에 유채, 95×82cm, 1957, 개인 소장. 2 에릭 요한슨 (full moon service).

상상을 소환하다

⟨에릭 요한슨 사진展: Impossible is Possible⟩ 6, 5~9, 1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대규모 전시가 전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한다.

에릭 요한슨의 사진은 마치 직관적인 동화의 한 페이지와 같다. 스튜디오에 조명을 달듯 다양한 모양의 달을 바꿔 다는 스태프, 깎인 양털로 띄운 구름, 풍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 열기구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 나룻배 위에서 모닥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먹는 소년과 할아버지 등 어릴 적 머리로 그린 상상을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해낸다.

에릭 요한슨은 사진작가이자 리터칭 전문가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단순한 합성 사진이라 단정 짓기는 힘들다. 그는 작품 한 점에 나타 난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해 한 겹씩 겹쳐 쌓아 올린다. 그 레이어가 150개 이상이다. 작품 제작 과정도 예상처럼 만만치 않다. 최종 디

테일을 살리기 위한 작업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아날로그의 노동을 통해 디지털의 도구를 유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작가 본인도 사진작가보다는 미술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에릭 요한슨은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접했다. 그의 작품에서 마그리트 특유의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건을 전혀 다른 상황에 놓는 미술 기법)을 발견하는 것도그 때문의 테다

SNS를 기반으로 입소문을 탄 에릭 요한슨의 전시엔 평일에도 관람 객이 북적인다. 종종 엉키는 동선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밝다.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낸 서정적인 작품이 그 이유일 테다. 에릭 요한슨의 영감은 '만약'에서 나온다. 불안한 현실과 권태로운 일상에서 현대인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번 사진전에는 대형 작품부터 작품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 메이킹 필름과 스케치, 소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글 김영민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주식회사 씨씨오씨

인간을 위한 예술

책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과 〈댈러웨이 부인〉

연극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직접 기록한 책이 나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일곱 번째 예술교육총 서로 발간한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이다. 또 인간주의 문학으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 작품, 〈댈러웨이 부 인〉도 새로운 판본으로 출판됐다.

연극으로 표현하기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이시이 미치코 지음, 고주영 옮김,

서울문화재단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이시이 미치코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모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드라마티처'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학생들과 함께 만든 연극〈블루시트〉로 일본 대표 연극상인 '기시다구니오희곡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가는 청소년들의 희망을 만들어간 연극교육 과정을 10개 장으로 나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이 책은 표현교육 창설 경위부터 표현커뮤니케이션 코스에서 실천 중인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일본에서는 '10대와 접하는 사람 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특히 연극교육을 통해 고등학생과 마주하는 법을 알 수 있다.

미치코식 메서드는 연극을 표현하려면 자신의 몸을 먼저 컨트롤해 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의 상태와 머리로 생각한 이미지가 몸에 반영되는데, 그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섬세하게 감지할 센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몸 안쪽에 대한 감각과 동시에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부감할 수 있는 객관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슬픔을 치유할 에너지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면서 '표현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운다. 일반적인 연극교육은 희곡에



대해 강의하거나 토론을 벌이고, 발성 훈련을 하고 대사를 외우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르다. 저자는 "연극은 표현의 한 가지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 는 마인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타인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한다. 결국 연극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창작의 주체가 될





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 혹은 자신들의 몸이 가진 가능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실제 삶을 보다 잘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연극교육을 통해 이루고 싶은 바"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에 관한 통찰

〈댈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 지음, 정명희 옮김, 솔출판사

울프는 조이스, 프루스트와 함께 '의식의 흐름'의 대가라 불리는,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작가이다. 1925년에 발표된 이 장편소설은 상상력의 온전한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울프의 대표작이다. 이 소설은 기획 29년 만에 새로운 판본으로 완간되는 〈버지니아 울프 전집〉중 한 권이다.

울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페미니스트이다. 울프의 페미니즘은 비록 예술이라는 포장지에 곱게 싸여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격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절대 울프 문학의 진수가 아니며, 전부는 더더욱 아니다.

왜 지금 울프일까? 무엇보다 울프의 문학은 한마디로 인간주의 문학이라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을 설파한 문학, 이타주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고전 중의 고전이 그의 문학이다. 울프 전집 간행위원회는 "모더니즘, 페미니즘, 사회주의와 같은 것들은 그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잠깐씩 들른 간이역에 불과하다"며,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인본주의라는 정거장이었다. 우리가 크고도 울창한숲과 같은 이 작가의 문학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않았다. 이제 바야흐로 이 깊은 숲을 조망할 때가 온 것으로 믿는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 울프 전집을 발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울프는 그동안 남성작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소설 작법에서 벗어나 특유의 기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된 질서를 뛰어넘어 단 순히 여성 해방의 차원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인간 해방의 깊이 있는 문학을 지향했다. 아울러 이성적 언어 이전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서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삶의 심연에 천착해 깊고 다양한 문학 세계 를 이루었다

〈댈러웨이 부인〉은 가부장제도 안에서 '완벽한 안주인'으로 살아가는 댈러웨이 부인이 파티를 열기 위해 런던 거리로 꽃을 사러 나가는 것으로 시작해 파티의 정점에서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을 그리면서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에 관한 울프의 통찰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두 축은 댈러웨이 부인과 참전 후정신병을 앓고 사회로부터 비정상으로 판정받은 셉티머스의 삶으로 양극화된다.

울프는 놀랍도록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영혼의 독립'을 외치는 양극단에 선 인물을 묘사해나간다. 댈러웨이 부인의 파티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서로를 연결시켜 합일을 이루는 상징이다. 울프 소설의 특징인 의식의 흐름 기법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현재와 회상을 통해 다단한 사유와 단상들을 풀어놓고 연결시킴으로써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의 화해를 보여준다.

글 이성봉_UPI 뉴스 기자 **사진 제공** 커뮤니케이션북스, 솔출판사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 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답니다. 채 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예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자칭 문화예술 애호가(?)입니다. 최근에는 좀 더 시야를 넓히고자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의 문화와 예술은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더 알고 싶고 배우고픈 욕망이 커지는데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와 예술이 그렇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매력을 알게 된 쿠바도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고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한국에는 아프리카의 문화예술 자료가 부족한 거 같아 아쉽습니다. 혹시 예술적 상담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은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안녕하세요. 나모리 이영용입니다. 저는 서아프리카 공연예술단 바라칸(Barakan)의 음악감독입니다. '만데' 또는 '만뎅'이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옛 말리왕국 문화권의 음악을 주로 연주하며, 아프리카 각 문화권의 음악과 예술에 대해 연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질문 중 "익숙하지 않은 곳의 문화와 예술은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며, 제가 아프리카 음악에 매료되어 아프리카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의 감흥이 여러 감정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느끼는 호기심은 지식을 확장하고, 재구성된 지식 체계를 통해 생각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문화와 예술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변화하듯, 문화도 여러 이유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접변은 동등하고 우호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침탈과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구의 아프리카 침략이 쿠바 등 제3세계 문화를 변화시킨 것이 그 예라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Culture, 文化)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 '예술(Art, 藝術) 문화의 한 부분으로, 예술 활동과 그 성과의 총칭'. 문화를 사회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면, 상이한 집단의 문화 차이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원주의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문화나 예술에 관한 자료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침탈의 역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프리카를 구호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여 그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역사적 산물이며, 인간의 권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민족중심주의, 선민주의 등을 떠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건전한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그럼 이제, 아프리카의 역사를 따라 음악을 예로 들어 아프리카의 문화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 신들이 생활하던 곳을 떠나 아프리카 밖, 특히 신대륙에 이주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유럽인들에 의해 자행된 노예무역 때문입니다. 노 예무역은 단순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신대륙으로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전반을 함께 신대륙에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자연히 그들의 생각, 종교, 문화, 예술 또한 함께 이동합 니다.

아프리카 음악이 다른 문화권의 그것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폴리'라고도 불리는 폴리리듬(Polyrhythm)입니다. 유럽 음악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폴리는 각각 다른 리듬(박자의 개념을 포함한)이 동시에 진행되는 음악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음악은 유럽 음악에 비해 리듬이 더 진보했습니다. 그 대신 화성적인 발전은 유럽 음악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음악과 달리 유럽 음악은 왜 화성이 복잡하게 발달했을까요? 유럽 음악의 뿌리는 중세 교회 음악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좋은 음악이란 천사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타악기, 현란한 리듬은 세속적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음악에서 리듬은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신 음악의 변화를 주기 위해 화성이 복잡하게 변화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리듬적인 특징과 춤, 유럽 사람들

의 악기와 화성이 만나 남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생겨납니다. 남미 음악에는 유럽 음악과 달리 다양한 타악기 리듬이 사용됩니다. 그중 쿠바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아프로쿠반(Afrocuban)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남미 음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클라베(Clave) 리듬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음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음악의 리듬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이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음악들의 리듬 기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로서의 음악은 각 집단의 내러티브, 미술, 춤 등과 분리 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대륙은 넓습니다.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각각 고유한 것처럼,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이한 문화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화란 우 열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인류 가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계관으로 접근할 때, 아프리카의 더 많은 가치를 읽을 수 있으리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나모리 이영용_서이프리카 공연예술단 바라칸(Barakan) 음악감독

석관동에서 만나 이문동을 지나 쌍문동에서 작별하다



지난 2월 23일, 게으른 느낌의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서 전화기부터 열어보았더니 문자가 한 통 들어와 있었다. 발신인이 '김금화 선생님'이었다.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들춰 보니 임종이니 장례식장이니 하는 단어가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러면서 발신된 번호를 눌렀다. 선생님의 조카가 전화를 받았다. 뭐야?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거야? 내가 물었더니 눈물에 푹 젖은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날 오후에 갑자기 위험해져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새벽에 임중하셨다고 했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거였다.

김금화(金錦花). 무당이다. 세상 사람이 다 천하게 여기는 직업 무당. 무당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천하게 두지 않으려고 평생 긴장하며 살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 앉은 자세나 선 자세를 흐트 러트리지 않았다. 정신의 맑음을 지키려고 천지신명에 대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옷매무새는 단정하고 얼굴은 곱고 머리도 중년 이후에 늘 쪽을 찌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석관동의 주택가였다. 처음엔 틀림없이 벌판이거나 논밭이었을 땅에다가 집장사가 똑같은 도면으로 지어서 팔았을, 다닥다닥 붙은 단층집들 중의 하나였다. 대문에 슬래브 지붕을 만들어 거기에 당장 쓰지 않는 시루나 알루미늄 쟁반과 대나무 채반들을 화분과 함께 놓았었다. 그는 굿을 하

고 점을 봐주는 무당인데 처음 만난 이후 올해 2월 4일 입춘(立春) 날까지 서로 아끼고 그리워하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살았다. 그런 그가 지구를 떠난 것이었다.

석관동에서 이름을 날리며 돈을 모아 안기부 담장이 가깝게 보이는 언덕바지에 2층 집을 장만해 옮겼다. 아래층에 식구들과 제자들이 지내고, 위층엔 신당을 내고 그 옆방에서 기거했다. 신당에는 그가 모시는 신들의 형상을 그린 마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며 촛불과 정화수가 놓여 있었 다. 내가 그 신당에서 평안을 느끼는 데 30년도 더 걸렸다. 그 세월 동안 조금만 불안하거나 서러움이 들 끓는 일이 생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거나 전화로 하소연해서 선생님을 귀찮게 해드렸다. 염치없 음이 파렴치 수준이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 욕심이 가라앉게 되면서 선생님을 찾는 일이 뜸해 졌다. 요즈음 들어서는 일 년에 한두 번 전화로 목소리를 듣거나 그랬다. 심지어 입춘 날이 되어도 선생 님 댁에 잘 가지 않았다. 무당과 단골 관계를 잇고 사는 사람들은 입춘맞이를 하러 가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액은 물리고 복은 받는 작은 치성을 드린다. 내가 그 행사에 소홀해진 건 당장 알고 싶은 액운이. 나 행운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잦기도 했다. 지난 2월 4일 입춘 날. 전화를 해서 입춘 행사를 하는지 물었다. 선생님은 병원에 계시고 제자들이 다른 해처 럼 행사를 한다고 했다. 선생님 댁 이문동 집은 재개발에 들어가서 한두 달 전에 월곡역 근처로 전세를 들 었다는 곳으로 갔다. 그동안 오래 보아서 정이 든 제자 셋이 단골들을 맞아 치성을 드려줬다. 어떤 화가 가 정성으로 그려준 선생님의 초상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행사 굿을 했던 사진들이 집 안 곳곳에 걸려 있 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심지어 쓸쓸한 기미마저 감돌았다. 내색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 병 원으로 갔다. 쌍문동 한전병원이었다. 간병인의 보호를 받고 계시던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고는 속울음을 우시는 것 같았다. 내 마음도 그랬다. 어느 제자가 아마 한두 해밖에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랬었다. 한두 해 가 어디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선생님은 입안이 헐어서 말씀을 잘 못하셨다. 선생님의 창백한 손을 맞 잡고 사진을 찍었다. 전화기의 사진을 보여드렸다. 선생님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나는 말없이 옆에 앉 아 있었다. 선생님의 삶이 갈피갈피. 켜켜이 느껴졌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울면 선생님을 영영 못 볼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그만 가라고 손짓하고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왜 가라고 하느냐, 더 있고 싶다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어눌한 발음으로 "바빠!" 하셨다. 간병인은 선생님이 이제 회복하셨다고 그랬다. 안심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다.

인간문화재 무당 김금화. 두 해 전 만수대탁굿을 할 때 걸음걸이가 어려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았었다. 그런데 작두거리를 할 때, 누가 당신 대신 작두날에 오를까를 제자들이 의논하자 당신이 맨발로 훌쩍 작두날에 올랐다. 다리가 불편했다는 건 거짓말 같았다.

그 김금화. 이 시대와 사회에 죄 한 번 지은 바 없으되 학대와 멸시와 차별의 벌판을 걷고 걸어서 2월 23일 새벽, 우주로 돌아갔다. 차별과 위협이 없는 곳에 계시리라 믿는다. 이제 이 지구에선 그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혼신을 다해서 천지신명께 몸을 굽힐 무당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글·사진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디바, 노래하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박성연

어느 극장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건 서울 시내 한 개봉관에서 영화를 혼자 봤다는 거다. 소문대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대단했다. 쿠바 아바나의 풍 광은 기막히게 아름다웠고, 얼굴 주름의 고랑만큼이나 깊 은 내공을 품은 평균 나이 75살 음악가들의 연주는 우이하 고 황홀했다. 극장 문을 나선 뒤에도 음악이 계속 따라왔 다. 집에 오는 길에 음반가게에 들러 OST CD를 샀다. 1번 트랙 〈찬찬〉(Chan Chan)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2001년 의 일이다. 18년이 흘렀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콤파이 세군도와 듀엣으로 볼레로 곡 〈베인테 아뇨스〉(Veinte Anos)를 불렀던 유일한 여성 멤버 오마라 포르투온도는 이제 89살이 됐다. 1930년 아바나에서 태어난 그는 댄서로 먼저 활동하다 보컬로 전향했다. 사랑의 비가인 볼레로를 잘 불러 '볼레로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쿠바 재즈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는 만능 보컬리스트다. 이 때문에 쿠바 음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 쿠바의 에디트 피아프(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로도 불린다.

영화에서 함께했던 동료 콤파이 세군도(보컬), 루벤 곤살레스(피아노), 이브라임 페레르(보컬)는 2000년대 초중반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곁엔 이제 엘리아데스 오초아(기타)만 남았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인 오마라 포르투온도는 요즘 마지막 월드투어 〈라스트 키스〉를 돌고 있다. 마지막 입맞춤이라….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인터뷰를 얼마 전 전자우편으로 청했다.

그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멤버로 활동할 당시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내 사랑 이브라임 페레르, 루벤 곤살레스와 함께했





1 쿠바 음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 오마라 포르투온도. (프라이빗커브 제공) 2 한국 재즈계의 대모 박성연. (JNH뮤직 제공)

던 모든 순간이 생각나요. 작은 공연부터 큰 페스티벌, 그리고 공항에서 무한정 기다리며 주고받은 농담과 웃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너무나 그리워요.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그들을 추억하고 기리는시간을 마련한답니다."

살아 있는 전설의 디바들

지난 5월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재즈페스티 벌에 갔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노란 머리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무대에 오른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일모레 아흔인 노인이 1시간 반 동안 서서 노래할 순 없을 터였다.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10대"라고 장난 섞인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역시 나이를 속일 순 없구나, 생각하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활기차게 큰소리를 내질렀기 때문이다. 전성기만큼 섬세하진 않았지만, 그의 노래에선 에너지가 느껴졌다. 89살 디바의 노래에 맞춰 20~30대 청년들이 춤을 췄다. 나라, 언어, 나이의 장벽은 달콤한 밤공기 사이로 스르르 녹아 없어졌다.

순간 또 다른 디바가 떠올랐다.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I did it my way~"(지난 세월이 말해주듯 난 온갖 역경을 맞았고, 내 방식대로 해왔어) 그가 토해내듯 쏟아낸 〈마이 웨이〉(My Way)의 마지막 소절이 들려오는 듯했다. "마이~"를 더 길게 끌고 싶었으나 힘에 부쳐 짧게 끊은 게 못내 아쉬웠는지, '오 마이 갓'을 소리 없이 삼키던 그 얼굴이 눈에 선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재즈계의 대모 박성연은 40년 전 자신이 문을 연 한국 최초의 토종 재즈클럽 야누스의 탄생 40돌을 축하하는 무대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노래했다.

1978년 11월, 박성연은 "재즈를 실컷 노래하고 싶어" 서울 신촌에 야누스를 직접 차렸다. 재즈가 좋아 미군부대 클럽에서 어깨 너머로 보고 독학한 한국 재즈 1세대 연주자들이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고 밤늦게 이곳에 모여들었다. 여기선 재즈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다. 매일 밤이 축제였다. 하지만 재즈는 늘 비주류였다. 야누스 또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신촌, 대학로, 청 담동을 거쳐 지금의 서초동 교대역 부근으로 옮겨야 했다. 빚이 쌓여가자 박성연은 2012년, 평생 모아온 자식과도 같은 LP 1,700장을 단돈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에도 지속된 경영난에다 지병마저 악화되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2015년 아끼는 후배 보컬리스트 말로에게 아누스를 넘기고 병원에 입원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야누스의 40살 생일을 축하하러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박성연은 인사말도 생략한 채 노래부터 시작했다.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노래해야 하는 사람"이 병원 6인실에 누워만 있었으니 오죽 배고팠을까. "연습을 못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면서도 노래하는 내내 그의 얼굴에선 행복이 넘실댔다. "결혼도 못하고 적자만 냈지만, 후회는 없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야누스를 할 거예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지난해 발표한 앨범 제목은 〈오마라 시엠프 레〉다. 언제나(siempre) 노래하는 오마라로 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박성연은 올해 3월 박효신과 듀엣으로 디지털 싱글 〈바람이 부네요〉를 발표했다.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처음 태어나 이 별에서/사는 우리 손잡아요". 박성연도 오마라처럼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다. 박성연의 노래에 20~30대 청년들이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고 싶다.

글 서정민_한겨레 기자

대학로의 탄생 비화

종로구 연지동과 효제동

도시는 도로, 필지(筆地), 건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도시 조직(Urban Tissue)이라 부른다. 도시 조직 관계의 구성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선형, 가지형, 직교형, 방사형 등의 형태1로 만들어진다. 대학로는 대학으로 가는 길을 따라 형성된 선 형도시에 가깝다.



대학로에는 대학이 없다

도시는 문화에 적응해가며 유기체와 같이 성장한다. 현재 대학로는 극장과 상점들이 밀집한 유흥가 정도로 인식된다. 지리적으로는 동 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대학로, 남쪽으로 마로니에공원, 북쪽으로 혜화동성당 사이 지역인 동승동 정도로 한정된다.

대학로는 대학도 없고, 선적인 길도 아닌 면적인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는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1924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과 1945년 해방 후 학교명을 변경한 국립 서울대가 있었고, 1975년 서울대가 관악구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1966년 서울시가 중구 쌍림동에서 종로구 혜화 동까지의 구간을 고시로 대학로로 지정했고, 1985년 문화예술거리 로 개방하여 도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 다. 대학로에 대한 인식은 마치 극장이 연극공연을 하는 곳으로 시 작되었으나, 지금은 극장 하면 영화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학로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1955년 2월 4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대학로를 "시내에서도 한복판 종로5가에서 대학로로 접어들면 연동교회 못미처에 경향뻐쓰의 발차장이 있다"라고 기술했다. 연동교회는 1894년 연지동에 설립된 교회로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대학로는 종로5가에서 연지동과 효제동 사이로 올라가는 대로로 설명했다

1941년 〈삼천리〉(제13권 제3호)라는 잡지에서는 대학로의 주변 상 황을 "대학은 도심의 동북(東北)에 위치하여 경성(京城)의 명승 창 경원(昌慶苑)에 상대(相對)하여 의학부 부속의원(醫學部 附屬醫 院)이 솟사 있어 회추원(回春苑)을 싸고 의학부 보관이 있다 12칸 (間) 도로를 포함하여 낙타산(駱駝山)을 등진 법문학부(法文學部). 도서관, 대학본부가 있다. 이 12칸(間) 도로를 세상에서 대학로라 칭하고 전차는 없지만 경성전기회사(京城電氣會社)의 빠스가 통 하여 교통의 편(便)은 지극히 좋다. 부근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醫 專), 경성고등공업학교(高工), 경성광산전문학교(鑛山專), 경성고 등상업학교(高商).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女子醫專) 등이 있어 경 성(京城)의 학생가(學生街)를 일우워 있다"라고 기술했다. 12칸 도 로2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경성의 학생 가'로 설명했다. 즉 종로5가에서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등의 근 대교육기관과 해방 후 서울대로 가는 길을 대학로로 인식했다. 하 지만 연지동과 효제동 사이의 도로는 율곡로(종묘관통선)와 함께 1931년 신설됐다. 이 두 대로는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대학 로 일대 커다란 도시적 변화의 시작점이다.







- 1 종로35길.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징을 반영해 창문과 벽을 차례로 수평띠로 입면을 구성하고, 삼거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디자인해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빌딩이다. 1923년 건축가 미스 반 데 로에의 '콘크리트 오피스 빌딩'이 연상되는 건축물이다.
- 2,3 율곡로16길, '충신장'. 원형을 증식시켜 입체적으로 구성해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와 피스톤같이 작동되는 기계처럼 디자인되었다. 1960년대 메타볼리즘³과 아키그램⁴ 건축가들의 전위적 디자인이 연상되는 건축물이다

근대 건축물들의 박물관으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1931년 대학로의 신설 이전에는 대 학로가 없었을까? 이 지역에 근대 고등교육기관이 등장한 것은 정 동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기지가 1894년 연지동으로 이전해오 면서부터다. 북장로교는 연지동에 경신학교(1886)와 정신여학교 (1895)를 설립한다. 경신학교는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의 전신 이다. 더불어 1907년 '공업전습소'가 현재 방송통신대 자리에 설립 되었다. 이후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고공)가 설립되었다. 종로에서 공업전습소로 가는 길은 현재의 종로35길과 율곡로16길 이다. 종로35길은 효제동이고, 율곡로16길은 충신동이다. 이 두 길 의 경계는 흥덕동천(대학천)으로 이곳에는 조선시대 신교(新橋)라 는 다리가 있었다. 이 길은 한국 최초의 건축과가 있었던 공업전습 소로 가는 길이었고, 도시화가 시작된 곳이었다. 최초의 대학로라 할 수 있다. 이곳은 1931년 대학로가 신설되고, 1977년 흥덕동천이 복개되면서 대학로에서 도심의 배후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일제강 점기에 번화한 대로변에나 있었던 2층 상가한옥부터 일본의 대표적 건축 양식인 오오카베(대벽)식 건물, 오래된 벽돌이나 타일로 조형 미를 구현한 빌딩까지, 근대 건축물들의 박물관처럼 건물들은 여전 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대학로는 대학의 이전보다 대형 도시 계획과 도로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다. 최초의 대학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도로명처럼이게 학생이 없는 도시의 뒷골목이 되어 그 의미와 가치를 지우고있다. 하지만 공업전습소가 있었다는 기억이라도 남기려는 듯 당시의 실험적(?) 건축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애써 웃음 짓고 있다.

글·사진 제공 정기황_건축학 박사,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1 선형도시(線型都市, Linear City)는 종교 시설, 교육 시설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길을 따라 형성된 도시 구조이다. 가지형(樹枝型都市, Tree—Type City)은 서울과 같이 종로 등의 길을 중심으로 길을 연결해가며 확장한 도시 구조로 나뭇가지처럼 길의 끝이 막다른 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직교형(直交型都市, Grid—Type City)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도시 형태로 바둑판처럼 도로를 구성하고 정형의 필지로 구성된 도시 구조다. 방사형(放射型都市, City with Radial Road Pattern)은 광장 등의 도시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원형, 사선 가로로 형성된 도시 구조다. 선형과 가지형 도시는 자연발생적 도시에 가깝고, 직교형과 방사형 도시는 계획된 도시이다. 이 밖에도 직교형과 방사형이 결합된 직교방사형 등 교통, 정치체계, 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진다.
- 2 1912년 경성시구개수상정계획노선(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路線)이 발표되었다. ①폭 30칸(間): 광화문에서 황토현광장(현재 세종로) ②폭 15칸(間): 태평로, 종로, 남대문로, ③폭 12칸(間): 율곡로, 우정국로, 을지로, 돈화문로, 대학로 일부, 훈련원로 등. 이외에도 10칸(間) 6개, 8칸(間) 15개 등 총 31개 노선의 주요 도로를 발표했다. 이후 5차례의 개정을 통해 총 47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 3 1960년대 일본에서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 이소자키 이라타(磯崎新),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등 젊은 건축가들이 성장/결합/증식 등의 개념으로 유기적 도시 건축을 지향한 전위적인 건축 운동이다.
- 4 1960년대 영국에서 피터 쿡(Peter Cook), 워런 초크(Warren Chalk) 등이 이동/변형/ 교환 등의 개념으로 과학기술 문명을 지향한 전위적인 건축 운동이다.

수평과 수직계급, 그 십자선 긋기

봉준호 감독

※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가 현상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기생충〉은 다 계획이 있었다. 개봉일을 칸 영화제 이후로 미루고, 황금종 려상이라는 산수경석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기생충〉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훨씬 즉시적이고 열광적인 현상속에 있다. 영화를 봤는지가 안부인사가 되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대화가 된다. 관객들은 켜켜이 쌓아둔은 유와 상징을 찾아내는 해설 놀이에 빠진 것 같다. 때마침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에 이 수상과 현상은 '참으로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하 인간의 원형, 〈플란다스의 개〉

2000년 어느 날, 텅 빈 극장에서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플란 다스의 개〉를 보고 멍했던 기억이 난다. 강아지 실종 사건을 둘러싼 서민 아파트 주민들의 소동을 그린 이 영화는 지독한 농담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영화였다. 낄낄대고 웃다가 대체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반문하게 만든다.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봉준호의 세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19년 전 봉준호 감독은 세상이 어차피 불공정하다는 전제를 두고, 사람들의 무기력증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영화는 비정규직과 독거노인, 부랑자.

학계의 적폐와 피곤한 사람들의 삶을 고루 바라보지만,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의 비루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누구도 악인은 아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기생충〉의 지하 인간의 원형이 이 영화에 등장한 다는 것이다.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아파트 지하에는 그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는 설정이다. 〈플란다스의 개〉속 반려견 실종사건은 떠들썩하다. 일상이 뒤흔들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려견의 실종에 슬퍼하던 아이는 새 강아지와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거노인의 죽음은 무말랭이 이외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속한, 소시민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나마 비리를 통해 기득권이 되는 방식을 택한 윤주만이 달콤한 미소를 짓는다.

계급과 선 긋기, 〈설국열차〉

극명한 계급사회에서 기생 혹은 공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설국열차〉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하고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 열차 속 인간관계는 철저한 계급 구조 속에서 유지된다. 가장 하층 계급은 좁고 더러운 꼬리 칸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류층은 열차의 앞 칸에서 기득권의 여유를 누린다.

생존자들이 탑승한 열차는 이미 극명화된 계급사회의 축소판이다. 〈기생충〉이 가장 높은 곳의 부잣집과 가장 낮은 곳의 반지하를 수 직으로 나눴다면,〈설국열차〉는 계급을 수평으로 나열했다. 마치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승객들이 서로 마주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다. 이 무국적 혹은 다국적 영화를 통해 수많은 인종 들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지극히 국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비틀린 유머와 정서가 파고들 틈은 없어 보인다.

봉준호 감독은 계급이라는 이야기가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설득 가능한 소재라는 사실을 〈설국열차〉를 통해 발견, 혹은 확인 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혁명과 그 실현이라는 전복적인 판타지 대신, 폐쇄된 공간에서 발현되는 정서의 흐름과 결국 어떤 노력도 이사회의 계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리란 인지 사이에서 분명한 선 긋기를 시작한다.

이미 틀에 짜인 정치, 사회적 시스템 혹은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권 력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늘 치열한 사투라는 씁쓸한 현실 에 더해,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불편한 비판 대신 보편적 정서라는 대중성에 더 가 까워졌다고도 볼 수 있다.

〈기생충〉은 불편한 계급 갈등 대신, 감정을 학대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계급이 갖춰야 할 예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에는 인디언 놀이를 하는 다송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캐릭터가 흥미롭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척하는지 알수 없는 다송은 지하 인간을 목격하고, 해고된 가사 도우미와도 연락하며, 가난한 자들의 모스 부호를 읽을 줄 알지만 해독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송은 삶의 진창에 발을 담그기보다는 한발 떨어져 현상을 관찰하려는 예술가와 닮아 보인다. 인디언 흉내를 내지만, 굳이 인디언 자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치 예술가가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동시대성은 홍수가 난달 돼지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다리 위에서 떠내려가는 돼지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하는 것 같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the DESIGN MUSEUM A touring exhibition from the Design Museum, London

Paul Smith

DDP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MY NAME IS PAUL SMITH

세계적인 영국 디자이너 **폴스미스**의 전시를 지금 서울 DDP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2019. 6. 6 - 8. 25

장 소: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2층

디자인박물관

티 켓:인터파크, 현장 구매 가능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人n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누구나 한 문장은 있다

(you,a sentence)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반짝이는 순간, 그것을 기록합니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담아내고 살피면서 그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장과 세계를 발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대화를 다르 게 바라보기를, 당신이 하는 말에는 당신만의 것이 있단 걸 알아차려주기를. _(그림일기 프로젝트) 포스터와 소개 글 부분 (웹진 [비유] 제공)

개봉한 영화를 보기 전, 검색창에 제목을 친다. 무명 감독의 데뷔작, 밋밋한 포스터, 심심한 카피, 낮은 별점, 호기심을 끌지 못하는 예고편…… 다른 영화 보는 게 낫겠네 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영화 속 명대사' 란에 실린 한마디 말이 눈에 밟힌다. 별거 아닌데 왠지 마음을 끄는 말, 짧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든 듯한 말.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결국 표를 산다. 영화가 어땠느냐고? 글쎄. 긴 러닝타임 끝에 영화는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 속에 반짝이는 대사가 있었고 그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한마디였으므로. 좀 시시한 이야기였대도 밑줄 그을 만한 데가 있었으니까 나는 별점을 후하게 주기로 한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마음에 남는 말이나 장면이 꼭 하나쯤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한 말이 반짝 빛날 때가 있다. 그가 얼마나 유명인인가 혹은 달변가인가 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영화나 책을 보듯이 한 사람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때, 그가 자기 삶을 진솔하게 꺼내어 말할 때, 그런 순간이 깃드는 것 같다.

비슷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우리가 얼마나 제각기 분투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같고도 다른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대화. 그런 순간이 휘발되지 않고 기억되기를, 기록을 통해 일상 속 한마디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란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문장은 있다'는 믿음으로 일상에서 마주친 일곱 사람을 인터뷰한 〈you,a sentence〉 프로젝트 팀이 그들이다. 〈you,a sentence〉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동창, 친구의 친구, SNS를 통해 안부 나누는 사이의 사람 등을 찾아간다. 여행잡지 에디터, 광고회사 마케터, 소셜 벤처 회사원, 에세이 작





편리함이 당연한 세상에서 날것이 주는 불편함을 꽤 오랫동안 잊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남들과 대회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들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에너지,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날것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날것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좀 더노력해서 상대에게 다가가 그들의 언어, 문장,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길 바란다. 불편함을 뛰어넘은 경험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_ 1화 '누구나 한 문장은 있다' 부분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엄기호, 나무연필, 2018)에서 하는 이야기는 고통을 곁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나눌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여러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에는 '재밌는 대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통 받는 사람이 '나도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구나' 생각을 가지게끔하는 거죠. 고통을 겪어내는 자기만의 건강한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_8화 '적어도 '곁의 곁'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분 (인터뷰이 오재형 님의 막)

가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을 인터뷰이로 초대한 만큼 대화는 각기 다른 색과 향을 풍긴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다. 인터뷰이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한 대화는 그가 자신의 삶에 있어 무엇에 왜 가치 를 두는지를 알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독특한 점은 모든 인터뷰는 필름 카 메라와 카세트테이프로 기록된다는 것. 편집되지 않은, 날것에서만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you,a sentence〉 프로젝트는 현재 8화까지 연재됐고 이제 최종화가 남았다. 1화부터 8화까지 제목을 이어서 읽어보았다. 각 제목은 인터뷰이의 말 중에서 한 문장씩 꼽아놓은 것인데, 신기하게도 한 목소리처럼 느껴져서 여기에 옮겨본다.

누구나 한 문장은 있습니다. 저는 뭉텅거리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써야 합니다. 좋은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청춘을 거쳤잖아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나한테 닿아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적어도 '곁의 곁'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 사람(황정한, 김다영, 윤형근)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책이 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그 책의 중요한 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이 어떤 '곁'을 내주는 것같이 들리는 건 왜일까. 이무도 들어주지 않던 내 말을 시시하지 않다고, 그러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보라고 다독여주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서는 아닐까. 필요하다면 웹진 [비유](view.sfac.or.kr)에서 그 곁을 만나보시길. 글 남지은 시인. [비유] 편집

연극人n

다양하게 행진하는 길거리 극장

2019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올해 20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20회를 기념하여 연속강연회와 전야제인 '서울핑크닷'도 열렸다. 서울광장 안으로 들어가자 색색의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다. 서울광장에는 퀴어와 연관된 여러 단체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침 11시부터 부스 행사가 시작되었다. 각 단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굿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단체를 후원하기도 했다. 무대에서는 퀴어연

극제 드랙공연팀 '바게트'를 비롯한 여러 공연팀이 환영무대를 펼치며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오후 4시부터 6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진행되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소공로 → 한국은행 앞 사거리 → 남대문로 → 을지 로입구사거리 → 종각역사거리 → 세종대로사거리 → 광화문삼거리 → 세종대로사거리 → 종각역사거리 → 을지로입구사거리 → 시청삼거리를 지나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4.5km의 거리였다. 모터바이크로 참여한 레인보우 라이더스가 광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뒤이어 퀴어 단체들이 탑승한 11대의 트럭이 뒤를 따랐고, 광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트럭을 따라 이동했다.

트럭과 관객이 만드는 11개의 이동형 극장

11대의 퍼레이드 차량인 트럭이 있었고, 트럭 위에는 11개 단체의 퍼포머가 타고 있었다. 각단체마다 의상을 갖춰 입고, 분장을 하고, 독특한 콘셉트를 보여줬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열한 가지 색깔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걸어도 뒤처진다기보다는 여러 무대를 즐길 기회를 얻었다. 그 힘으로 행진을 지속할 수 있었다. 퍼레이드 차량을 '무대'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트럭으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퍼포먼스와 관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퍼레이드 참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무대 위에







서는 신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행진을 독려했다. 관객선택형 공연처럼 체력이나 기분에 따라 어떤 무대에 참여할지 고를 수 있었다. 흡입력 있는 무대의 경우, 스타를 따라가는 팬처럼 참여자들이 트럭무대를 가까이서 보고자 신나게 달리며 행진했다. 이 중 11번째 트럭은 퀴어연극제가 준비했다. '메리 퀴어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썸머 캐롤이 흘러나왔다. '반갑게도 지난해 〈삼일로창고극장 봉헌예배〉 공연에서 봤던 '썸머' 배우가 춤을 추고 있었다! 트럭은 퍼레이드를 안내하는 길잡이였을 뿐 아니라, 무대와 길거리에 극장을 만들어 냈다. 4.5km를 걷는 동안 계속 무대를 골라가며, 가끔씩 뛰기도 하고, 신나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

축제의 장, 논의의 장이 된 거리극

혹시 모를 사고 대비와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경찰과 스태프들이 인간 안전띠를 만들어주었다. 그럼에도 걷다가 힘들면 중간에 인도로 이탈할 수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구경하다가 합류할 수도 있었다. 행렬이 지나갈 때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구경했다. 옥상마다, 창문 앞에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제각기의 표정으로 퍼레이드를 들여다봤다. 퍼레이드 참여자들은 단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퀴어'를 부정하는 단체들은 행렬 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슬로건을 들고 있었다. 유니폼을 갖춰 입은 단체도 있었고, 서로 사진 촬영을 하는 공격(?)도 선보였다. 퀴어에 반대하는 무리가 구호를 외치면, 행렬 안에서는 환호성으로 대응했다.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퀴어 반대자들은 행렬 안에서 볼 수 있는 행렬 밖 무대를 만들어주었다. 퍼레이드를 연결하는 트럭이 있고, 트럭을 따라가는 참여자가 있고, 그들을 위해 공연하는 반대자가 있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관객이 있다. 모두가 거리에 나와서 퀴어에 관련한 의견을 냈고, 들었고, 생각하며 축제가 됐다.

잠시 행렬에서 빠져나오니 퍼레이드를 신기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 축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 달라진 세상을 체감하는 말, 동성애에 대한 의견, '퀴어'라는 게 무엇인지 추측하는 말 등등의 의견이 들렸다. 이런 말들이 퍼레이드 주변부에서 오가는 것을 보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퀴어'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환기한다고 느껴졌다. 이처럼 '거리의 연극'이 할 수 있는 것은 극장을 찾지 않는 관객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 어디든 논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행렬은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축하무대를 즐겼다. 음향디자이너 목소의 랩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동료를 응원하기 위해 무대 앞 광장에 슬로건을 들고 신나게 공연을 즐기는 연극창작자 무리가 보였다. 무대를 만들던 사람들도 모두 함께 즐기는 날이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축제는 끝났지만. 날이 어둡도록 서울광장은 알록달록했다.

글·사진 김연재_연출가. 요지컴퍼니 소속. 연극과 전시를 하며 작가, 연출가, 드라마투르그, 월간 〈한국연극〉의 객 원기자로 활동한다. candylock@naver.com



춤+여기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공간이기에 떠날 수 없어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김매자







1.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작품을 만들고 싶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고, 지금까지의 작품들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환경이 나를 소멸시키는 건가 싶죠.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직접 오픈 클래스를 열고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만약 이런 기회조차 없었다면 저 자신이 소멸해가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나 봐요. 어느 누군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욕심이 지나치지 않느냐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즐겁고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걸요.

2. 당신에게 이곳의 의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춤 전용 소극장이에요. 처음 공간은 너무 오래되어서 5년 만에 정리하고, 이 건물을 1993년에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5년 동안 춤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니 비로소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작품이 〈일무〉라고 해를 부르는 춤인데, 이곳에서 5년 만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제 춤의 화두인 밝음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밝음을 지향하는 춤을 추고 있어요. 이후로도 이곳에서 1시간이 넘는 작품들을 매해 창작했어요. 말 그대로 창작산실이죠. 지금까지의 작품들 모두 이곳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여기를 떠날 수 없죠.

3. 이곳에서 축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이 공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저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전통춤을 새롭게 보기도 하면 서 지금까지 완전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또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제 마음에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공간이죠.

4. 이곳에서 춤은 어떤 모양인가요?

전통과 창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도 해요. 불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감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아늑하고 산만하지 않아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떤 무용가들은 이 공간을 조명이 잘 먹도록 다 까맣게 칠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빨간 벽돌 자체가 모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벽돌 하나하나에서 호흡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대로가 좋아요. 이처럼 지나가는 사람의 손길도 느껴지고. 전통과 현대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니까 계속 이곳에서 춤이 추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 더욱 특별하죠.

아티스트 소개 김매자는 한국 창작춤 무용가이다. 1971년부터 1991년까지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창무예술원을 설립하여 한국 춤의 새로운 양식을 이끌었다. 안무작으로 〈춤본1,2〉、〈숨〉、〈삶〉、〈하늘의 눈〉、〈심청〉、〈얼음강〉、〈FULL MOON〉、〈대전블루스〉、〈이곳〉、〈마고〉 등이 있으며, 현재 창무예술원 이사장, 무용월간지〈몸〉 발행인, 중국 북경무용대, 연변대학, 중앙희극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1

- 2019 MEET 〈공룡共湧〉(~7.31)
- 2019 MEET 〈UHD MULLAE: 초고해상도로 빛나는 이미지-기억의 벽〉(~7.31)
- 예술로 힐링 〈새로운 기억〉(~7.29)
- 활력콘서트(~7.31)
- 삼각산 활력콘서트(~7.31)

2

-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화요극장〉(~7.30)
-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2019 세종솔로이스츠의 힉엣눙크! 갈라 콘서트〉
-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 오리지널 내한공연(~7.14)

3

- 삼각산 어린이 수요창작소(~7.31)
- 서정민 가야금 콘서트 〈HOME〉
- 청년국악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 콘서트〉(~7.6)
- 오페라 〈텃밭킬러〉(~7.6)
- 서울변방연극제(~7.13)

8

■ 연극 ⟨배신⟩(~7.20)

9

- 2019 서울청년예술단X금천예술공장 _비평주점 Ep5: 순수예술의 영역: 미술!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 소프라노 박경신 독창회
- 2019 MAC 청소년 썸머 스페셜 〈동물의 사육제 & 피터와 늑대〉
- 전시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10.27)

10

- 전시 〈다음 전시 준비 중_ Work in Process〉(~7.10)
- 전통 공예의 미美 탐구 II 〈木 갈이공예전〉(~7.10)
- 여우樂(락) 페스티벌(~7.14)
- 연극 〈맥베스 : 시간의 무덤〉(~7.21)
-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아빠닭〉(~7.21)

15

22

- 시민청갤러리 초청전시 〈도시갤러리 전주〉(~7.29)(삼각산시민청)
- 2019 서울춤자랑 네트워킹 댄스파티

16

■ 바리톤 김동규의 〈The Summer Festival〉 (~7.17) 17

- 모던 앤 클래식 2 〈2019 HOT STAGE -영아티스트〉
- 연극 〈춘의 게임〉(~7.21)

23

-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 공연(~8.21)
- 전시 〈화가의 시선, 우리 강산을 그리다 - 조선시대 실경산수화〉(~9.22)

24

- 예술聽 운영을 위한 열린 공론장 〈동숭예술살롱〉공개포럼 ((구)동숭아트센터 재개관 추진단 TFT)
- 국립국악원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7,27)
- 2019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8.4)
-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댄싱뮤지엄〉(~8.4)
- 연극 〈비너스 인 퍼〉(~8.18)

29

■ 전시 〈최승윤 : 남자의 꿈〉(~7.29)

30

- 극단 로.기.나래 〈안녕, 도깨비〉(~7.31)
- 뮤지컬 〈벤허〉(~10.13)

31

56.015

- 2019 MAC 청소년 썸머 스페셜 〈문학콘서트 소나기〉
- 전시 〈더 아트 오브 옐로우〉(The Art of Yellow MUTEMUSE x B.D. Graft)(~7.31)
- 전시 〈여림의 미학: 19세기 유럽 명품 유리기〉(~7.31)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창고극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세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여히므하차자초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THU	FRI	SAT	SUN
4 ■ 서울무용센터 레지던시 선정 예술가 — Flying Bottle Project 쇼케이스 ■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깊은舍廊사랑:사계축〉(~7.5) ■ 연극〈쇼코의 미소, 빛의 호위〉(~7.7) ■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8.8)	5 ■ 예술놀이LAB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바우동:비디오로 바라본 우리 동네〉 ■ 예술로 힐링 〈안심해요, 토닥토닥〉〈~7.12〉 ■ 2019 NEWStage 선정작 〈구멍을 살펴라〉 (~7.14) ■ 〈2019 다크룸 북메이킹 프로젝트: 시, 상, 책-문학과 사진과 책의 조우〉 (~9.30) ■ 음악극 〈섬:1933~2019〉 (~7.21) ■ 뮤지컬 〈구내과병원〉 (~9.1)	6 ■ 창작채움공방 〈스탬핑 캠프〉(~7.27) ■ 예술놀이LAB 커뮤니티 프로그램 〈사운드 픽토그램〉 ■ 예술로 힐링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는 낭독공연 "마음 낭독"〉 (~7.27) ■ 전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7.6) ■ 어반 뮤직 페스티벌 2019(~7.7) ■ 뮤지컬 〈사의찬미〉(~10.20)	7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2019 아카이브 전시 〈인디스트와 프린지: 지금, 여기의 일탈〉 (~7.7) ■ 삼각산시민청 〈할머니 동화책〉(~7.28) ■ 비비아나킴의 색다른사계 〈A Seasons for Romance〉 ■ 연극〈보도지침〉(~7.7) ■ 연극〈콜리엣과 줄리엣〉(~7.7) ■ 연극〈콘센트—동의〉(~7.7)
■ 금천예술공장 10기(B텀) 국외입주작가 성과공유전시(~7.31) ■ 2019 서울변방연극제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7.13) ■ 〈같이, 가치: A/S 현재 공간 다시 읽기〉 (~8.4) ■ 전시〈가가호호:다총적 기억〉(~7.28)	 ● 예술놀이LAB 학교참여 프로그램 〈아트히어로〉 ● 전시 〈장남원 : 움직이는 섬〉(~7.12) ● 연극 〈그게 아닌데〉 – 서울(~7.28) ● 연극 카프카〈변신〉(~7.28) 	 ● 한마음살림장 ●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밴드〉 ■ 〈2019 POP 빙수 JAZZ - Ku il oh Trio〉 ● 바르셀로나 기타 트리오 & 댄스 〈스페인의 추억 플라멩코〉 ● 연극 〈레라미 프로젝트〉(~7.28) ● 뮤지컬 〈난설〉(~8.25) ■ 연극 〈미저리〉(~9.15) 	 ●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 연극〈굴레방다리의 소극〉(~7.14) ● 뮤지컬〈안나카레니나〉(~7.14) ● 전시〈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7.14) ● 전시〈일상의 자세, 의자 그리고 사람〉(~7.14) ● 전시〈Flying Princes〉(~7.14) ● 뮤지컬〈맘마미아〉(~9.14)
18 ■ 재즈 콘서트 〈Summer in Jazz〉 ■ 2019 환기재단 작가전 〈정연희: Chorus of Trees〉(~7.18) ■ 전시 〈컨플루언스 포인트〉 ((Confluence Point)(~7.18) ■ 연극 〈마지막 동화〉(~7.28)	19 ■ 배유리(캐리어 carrier)(~7.21)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Classic Hero I〉 ■ 고상지〈피아졸라의 천사와 악마〉 (Piazzolla Angel & Diablo)(~7.20) ■ 전시〈그림도시 S#4 도시국가정부〉 (~7.21) ■ 유니버설발레단〈지젤〉(~7.21) ■ 국립현대무용단〈쌍쌍〉(~7.21)	20 ■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 제12회 카오스 콘서트 〈변신, 기원 이야기〉 ■ 전시 〈마고〉(~7.20) ■ 〈영 아티스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작가展〉(~7.20) ■ 2019 우면산 별밤축제(~9.7)	21 ■ 〈하루키, 라틴 지브리를 만나다〉 - 서울 ■ 전시 〈물은 셀프〉(~7.21) ■ 전시 〈안톤 비도클 : 모두를 위한 불멸〉 (~7.21) ■ 전시 〈팬텀시티〉(~7.21) ■ 전시 〈행복연구소 Happy Lab〉(~7.21)
25 ■ 전시〈신물지〉(神物紙)(~7.25) ■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vol.7 (~7.28)	26 ■ 요지컴퍼니〈오픈워터〉(~8.4) ■ 모두의 시민청〈달라라 여행〉(~7.28) ■ 2019 서로 기획대관〈서로:SEORO〉 - 연극〈악어〉(~7.28) ■ 2019 정동극장 창작ing 음악극 〈낭랑긔생〉(~8.18) ■ 〈영화 포스터로 보는 한국영화 100년전〉(~9.15)	27 ■ 시간의 편집, 나만의 앨범 만들기 ■ 토요일은 청이좋아 〈다리미 콘서트〉 ■ 스페인 라룸베 무용단 〈3D-백조의 호수〉(~7.28) ■ 국립발레단 〈KNB Movement Series 5〉(~7.28)	28 ■ 2019 MEET 《어린이 에코극장 멸종위기 동물들》 ■ 전시 〈구혜선 : 니가 없는 세상, 나에겐 적막〉(~7.28) ■ 뮤지컬 〈록키호러쇼〉(~7.28) ■ 뮤지컬 〈메피스토〉(~7.28) ■ 전시 〈불온한 데이터〉(~7.28) ■ 전시 〈추억의 사진관〉(~7.28)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공룡共湧)(Action for Mullae Artist

Network)

문래창작촌 지역마을예술인 자치모임인 '문래 마을예술인회의'의 출범을 기념해 연중 진행되 는 참여 예술인들의 릴레이 전시, 7월 참여 작 가는 윤규진, 서찬석, 박지원, 서선희, 홍지다.

일시 7월 1일(월)~31일(수)

장소 상상채굴단(영등포구 도림로 431)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UHD MULLAE: 초고해상도로 빛나는 이미지-기억의 벽〉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작가 듀오 '강이'가 자체 스튜디오 쇼윈도를 활용해 오랫동안 디 지털 기호로 제작된 벽화를 그리며 디지털 화 면과 질료 활용 방법론을 연구한다.

일시 7월 1일(월)~31일(수)

강이 스튜디오(영등포구 선유서로30 기 21)

관람료 무료

무의 02-2676-4332



(2019 세종솔로이스츠의 힉엣눙크! 갑라 콘서트〉

세종솔로이스츠는 지난해 러시아의 주요 음악 제 중 하나인 '트랜스 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 에 초청되어 바딤 레핀, 클라라 주미 강과 함 께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 스크에서의 3회 전 공연을 전석 매진시켰고, '2019 트랜스 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의 한국 단독 파트너로 선정됐다. 당시 러시아 관객들 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감동의 시간을 이 번 갈라 콘서트에서 국내 관객에게 선사한다.

일시 7월 2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2-584-5494



〈깊은舍廊사랑:사계축〉

〈깊은舍廊사랑〉 시리즈(3부작)는 오늘날 사라 져버린 경기민요의 전통문화 '깊은사랑'과 이 와 맞닿아 있는 우리 전통소리, 문화의 원형 을 복원하고 소환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 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의 3번째 레퍼토리 이다.

일시 7월 4일(목)~5일(금) 오후 8시

장소 서촌공간 서로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02-730-2502, https://spaceseoro.

com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우리 음악의 뿌리 위에 새로움을 더하여 국악 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명품 국악 공 연이 펼쳐진다. 4일 개막 공연 〈경계를 넘어〉 를 시작으로 우리 안의 국악 감수성을 일깨워 줄 13작품의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이 5주간 관 객을 찾아간다. 소리꾼 김준수, 국악인 김영임. 음악그룹 the 튠. 헤이스트링 등이 참여한다.

일시 7월 4일(목)~8월 8일(목)

장소 마포아트센터

관람료 공연별 상이

문의 02-3274-8600



2019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 선정작

〈구멍을 살펴라〉

이야기의 원천을 찾아가는 무협의 고수들, 엉 뜻한 데서 방법이 튀어나오고 먼 길을 돌아온 듯해도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니, 다만, 너의 구멍을 직시하고 살펴래!

일시 7월 5일(금)~1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10-2322-4016





〈2019 다크룸 북메이킹 프로젝트:

시, 상, 책-문학과 사진과 책의 조우〉

시 텍스트와 상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담는 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시어의 음률과 아름다움을 공감각적인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재해석하는 타이포그래피 작업과 시적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가 공간 속에서 공명할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일시 7월 5일(금)∼9월 30일(월) 오전 10시 ∼오후 6시(일 · 월 휴관)

장소 닻프레스 문화예술공간(광진구 아차 산로 471 CS Plaza B102)

관람료 무료(전시 연계 워크숍 및 강연은 유료 예약 필수)

문의 02-447-2581



음악극 〈섬:1933~2019〉

'불멸의 희망은 보고 느껴져야 하며 우리는 희망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된 공연이다. 과거 1933년 부터 현재 2019년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섬'을 통해 그 안에 분명히살아 있는 희망을 보여주려한다.

일시 7월 5일(금)~2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7시(월 공연 없음)

장소 우란2경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2-391-8223



뮤지컬 〈구내과병원〉

죽은 이들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신선한 발상 이 돋보이는 창작 뮤지컬. 팍팍한 일상에 지쳐 버린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일시 7월 5일(금)~9월 1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6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 시·5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예스24스테이지 3관

관람료 전석 6만 원

문의 02-3672-09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9년 창작채움공방 〈스탬핑 캠프〉

도형 모양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규칙과 소통을 통해 여럿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고, 나누어 갖는 워크숍이다. 점-선-면-형으로 이어지는 조형의 원리를 경험하고, 생각과의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일시 7월 6일(토)~27일(토) 매주 토 오전 11 시, 오후 1시(27일 오전 11시, 오후 1 시·3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참가비 어린이 2천 원

문의 02-871-7414, 7400



뮤지컬 〈사의찬미〉

우리나라 최초로 신극 운동을 일으킨 천재 극 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이자 일 제강점기 신여성의 대표주자 윤심덕. 두 예술 가의 미스터리한 투신 사건을 추적해간다.

일시 7월 6일(토)~10월 20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 시·7시, 일 오후 2시·6시(7월 11일·월 공연 없음, 7월 6일 오후 7시, 7월 7일 오후 6시, 7월 8일 오후 8시)

장소 대학로 TOM(티오엠) 1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2-766-7667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9 아카이브 전시 〈인디스트와 프린지: 지금. 여기의 일탈〉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22년째 이어온 독립예술축제로, 여기에는 예술가와 사무국, 관객과 더불어 주체적 자원활동가인 '인디스트'가 존재한다. 인디스트의 시선으로 과거와 현재의 프린지를 돌아본다.

일시 ~7월 7일(일) 화~일 오전 11시~오후 8시(월 · 공휴일 휴관)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070-7092-8172, www.seoulfringe.net



연극 (배신)

20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 해롤드 핀터(1930~2008)의 작품을 극단 양손 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린다. 로버트와 로버트의 아내 엠마, 로버트의 가장 친한 친구 제리의 삼 각관계를 통해 거짓말과 배신을 보여준다.

일시 7월 8일(월)~20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 7시, 일 오후 3시(7월 15일 공 연 없음)

장소더 줌 아트센터관람료전석 4만 원

문의 02-790-6792~3



2019 서울변방연극제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법과 정치는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들어와 다양한 구성원들과 우정을 나누고 연인을 만나는 일에 장애가 불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휠체어를 탄 법률가는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일시 7월 11일(목)~13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 7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70-7913-9071, www.smtfestival.org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 전시 〈같이. 가치: A/S 현재 공간 다시 읽기〉

홍대 앞 공간교류사업 〈같이, 가치〉는 마포구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예술공간들이 협력하고 고민을 나누는 플랫폼을 목표로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마포구공간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시한다.

일시 7월 11일(목)~8월 4일(일) 화~일 오 전 11시~오후 8시(월 · 공휴일 휴관)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및 예술 다방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1551



전시 〈가가호호:다층적 기억〉

저마다 다른 집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모여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매일 쌓여가는 기억처럼 이야기하듯 전한다. 시민기획단 공감분과 기획전시이다.

일시 7월 11일(목)~28일(일) 오전 9시~ 오후 9시

장소 시민청갤러리(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1.

http://seoulcitizenshall.kr/es all



한마음살림장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판매 및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형 소 통장터와 예술체험교실 '한숨'이 진행된다.

일시 7월 13일(토)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6,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밴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삼각산시민청의 대표 행사.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 같은 음악 속 작은 이야기! 유명 5인조 모던 록 밴드 '엔분의 일'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일시 7월 13일(토) 오후 3시~4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선착순 100명)

문의 02-900-0073, 4300,

http://sg.seoulcitizenshall.kr/es_all





뮤지컬 〈난설〉

자신의 시가 사라지기 바랐던 허초희, 그의 시를 세상에 남겨놓은 동생 허균, 그 시를 누구보다 아꼈던 스승 이달. 뮤지컬 〈난설〉은 허초희의 시를 거문고 운율에 실어 전한다.

일시 7월 13일(토)~8월 2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7월 13일 오후 7시)

장소 콘텐츠 그라운드

관람료 일반석 5만 원, 시야제한석 4만 원

문의 02-391-8223



뮤지컬 〈맘마미아〉

〈맘마미아〉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엄마 '도 나'와 딸 '소피'의 이야기가 〈댄싱퀸〉, 〈허니허 니〉 등 아바의 히트곡과 함께 관객을 찾아간다.

일시 7월 14일(일)~9월 14일(토) 화·수·금 오후 8시, 목 오후 3시·8시, 주말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7월 18일 오후 8시, 8월 15일 오후 2시·6시 30 분공연)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02-577-1987



배유리 〈캐리어 carrier〉

화장터 앞에 캐리어(carrier)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모든 짐들을 비우고 캐리어 속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현재 나의 주거 공간은 자의반 타의반 서울 중심부의 33㎡ 원룸이다. '집'은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인 위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일시 7월 19일(금)~21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3789-9635, www.nsac.or.kr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푸른 달빛 아래, 꽃잎처럼 흩날리는 순백의 튜튜를 입은 '윌리'들이 선보이는 백색 발레 (ballet-blanc).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만난다.

일시 7월 19일(금)~21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2시 · 7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9만 원,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2230-6601



국립현대무용단 〈쌍쌍〉

국립현대무용단은 스페인 안무가 마르코스 모라우를 초청해 신작 〈쌍쌍〉을 제작, 세계 초연한다. 거울에 반사된 '쌍'의 형상이 나 자신이면서도 나 자신이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 순간 덮쳐오는 어둡고도 강렬한 쾌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무한한 '쌍'들이 펼쳐내는 아름다움, 그 속에 숨겨진 어둠을 포착한다.

일시 7월 19일(금)~21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3472-1420



전시 〈화가의 시선, 우리 강산을 그리다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경산수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정선, 김홍도를 비롯하여 한시각, 조세걸, 김윤겸, 강세황, 정수영, 김하종, 윤제홍 등 17세기부터 19세기에 활동한 화가들의다양한 실경산수화를 선보인다. 화가의 시점에 따라 실재 경치가 화면에 그려지는 방식들을 살펴보고, 주관적 시선(해석)에 의해 해체, 재구성되는 양상을 조명한다.

일시 7월 23일(화)~9월 22일(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관 특별전시실

관람료 성인 5천 원, 어린이·청소년 3천 원, 유아·노약자 무료

문의 02-2077-9000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댄싱뮤지엄〉

드가의 〈발레리나〉,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을 비롯한 유명 화가의 그림 속 인물들이 살아 난다. 미디어아트로 표현된 총 100여 점의 미 술작품들과 함께 서울발레시어터의 12명의 무 용수가 다양한 안무를 선보인다.

일시 7월 24일(수)~8월 4일(일) 오전 11시,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1층석 3만 5천 원, 2층석 2만 원, 3층석 1만 원

문의 02-580-1300



전시 〈신물지〉(神物紙)

전시 제목 〈신물지〉(神物紙)는 '신성한 물건, 한지'라는 의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도 전통의례에서 사용하는 기메, 충청도 설위설 경, 지화의 종이 무구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지워진 전통신앙의 기억을 복원한다.

일시 ~7월 25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일 휴관)

장소 우란1경

관람료 무료

문의 070-7606-6688



요지컴퍼니 〈오픈워터〉

'잠수 탄다.' 누구나 들어봤을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한다. 그들은 왜 종적을 감추는 걸까? 마치 물속 깊이 잠겨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잠수'를 떠올린다. 말이 전달되지 않고, 호흡만이 있는 세계. 나의 몸에만 집중한 채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다시 생각해본다. 잠수는, 무책임한 도피일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자유의 시간일까.

일시 7월 26일(금)~8월 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3만 원

문의 02-3789-9635, www.nsac.or.kr



모두의 시민청 〈달라라 여행〉

시민기획단이 만드는 시민 주도 프로젝트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특별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이다.

일시 7월 26일(금)~28일(일)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일대(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음악극 〈낭랑긔생〉

'간난이'로 불리며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살던이가 권번에 들어가 '향란'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선생과 친구, 동료를 만나 노래와 춤, 글을배워 세상을 깨쳐나가며 스스로를 억압하는세계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낭랑긔생〉은 권번을 중심으로 5명의 여성을 등장시켜각자의 욕망을 그려낸다. 다양한 인물상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역사 속에 있었음 직한 이들을 불러낸다.

일시 7월 26일(금)~8월 18일(일) 화~토 오후 8시, 일 오후 3시

장소 정동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751-1500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어린이 에코극장 멸종위기 동물들〉

배우와 예술교육가로 구성된 단체 '넘나들이'에서 제작한 작품. 환경을 소재로 한 어린이 대상의 체험형 공연이다

일시 7월 28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2회)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1만 원

문의 02-2676-4332



8.3(토)~18(일) 세종체임버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2019 썸머클래식

8.9(금)~8.10(토) 세종대극장

서울시합창단

신나는 콘서트 8.17(토) 세종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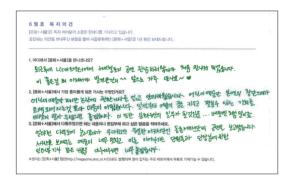
📂 sejongcenter 🙍 플러스친구 ID : 세종문화회관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김홍민 님(경기도 안양시)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퇴근 후에 LG아트센터에 레이첼 포저 공연을 관람하러 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발견한 건지~^^ 앞으로 자주 만나요~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예술단 폐단 논란에 관한 기사를 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예술단 본연의 창단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찍부터 예술의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문화유산의 일부가 될 것임을… 베토벤처럼 말이죠.
- 말씀을 적어주세요. 얼마전 대부도에 놀러 갔다가 동춘서커스단의 공연을 봤습니다. 서커스로 보여주는 예술이 너무 멋졌어요. 이를 이어나가는 단원들과 단장님에 관한 인터뷰 등을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편집 후기

일석이조, 일타쌍피!! 학원에서 내준 숙제로 다음 달도 고민 끝!!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하반기에도 건승, 건필 하세요.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본격 여름! 처음 편집 후기를 남겼던 날보다 숨소리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배슬기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공연 후 LG아트센터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문화+서울]이 몇 권 안 남은 것을 보고 내심 뿌듯했는데, 이렇게 같은 공연을 본 독자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판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